

碩士學位論文

建築史的 측면에서 본 濟州建築의
변화과정에 관한 研究

— 1876년 이후의 近代建築과 現代建築의 전개과정을 中心으로 —



71.633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建設環境工學科

金 正 訓

1 9 9 9

建築史的 측면에서 본 濟州建築의 변화과정에 관한 研究

— 1876년 이후의 近代建築과 現代建築의 전개과정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金 泰 一

이 論文을 工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 年 月 日

濟州大學校 產業大學院

建設環境工學科

建築工學專攻

金 正 訓

金正訓의 工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9 年 月 日

委員長 崔棟皓

委員 金泰一

委員 朴智民



A Study on Cheju's Architectural Variation in the Aspect of Architectural History

-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ism and post-modernism
since 1876 in the Center -

Kim, Jung-Hoon

*Department of Constructio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Industry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Tae-II*



Summar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is study periodically investigated the historic variation of Cheju's architecture since 1890's. Through this study, we had an object to connect the extinct traditional architecture with the modern architecture in Cheju and to present the fundamental data to develop our modern architecture from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For this study, we defined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modernism, and compared and analyzed our modernism variation, and finally examined the formative process of modernism and post-modernism since 1876.

This paper is summarized as follows.

Chapter 2 summarized Cheju's periodical state and the periodic classification transferred from modernism to post-modernism based on the periodic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our and western modernism.

Chapter 3 periodically and concretely summarized the Cheju's modernism at the flowering time and the quickening period. Also, this chapter includes the periodic classification of the extinct causes of the traditional and modern architecture by importing the western architecture.

Chapter 4 presents the post-modernism. The post-modernism is divided into the three period : the development period in 1970's, the settlement period in 1980's, and the glooming period.

From this study, we periodically classified the modernism and post-modernism, and examined the periodic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in Cheju since 1850's, and presented the fundamental things to connect the extinct traditional architecture with the modern architecture in Cheju and our important roles to develop the Cheju's architecture including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목 차

I. 서 론		1
I-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I-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I-3 연구의 내용		3
II. 근대시기의 한국의 근대건축		4
II-1 근대화의 과정과 근대건축		4
II-2 근대성 표출을 통해본 한국근대건축의 성격		10
II-3 근대 한국건축사의 시대적 구분 및 특성		17
II-4 제주건축에 있어서 근대 및 현대건축의 건축사적 시대구분과 성격		19
III. 제주지역에서의 개화기의 태동기적 근대건축과 일제하의 절충기적 근대건축의 성격		24
III-1 태동기적 제주 근대건축과 일제하의 절충기적 근대건축의 성격 (1876년-1945년)		24
III-2 근대제주건축의 발전기 (1946년- 1960년대)		33
IV. 제주에서의 현대건축의 전개와 지역성 형성의 모색기적 특성		41
IV-1 제주근대건축이 현대건축으로 전이되는 전개기(1970년대)		41
IV-2 제주개발의 정책적 추진과 현대건축의 정착기 (1980년대)		45
IV-3 제주 현대건축이 향토성, 지역성이 요구되는 모색기 (1990년대)		46
V. 결 론		51
V-1 연구의 결론		51
V-2 전망과 과제		53

I. 서론

I-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은 수많은 현실적, 역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축조물이며 일정한 사회적 관계 망을 떠나선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의 사회적 산물이다. 따라서 건축은 한 시대를 반영하되 단순하게 비추여지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 서구 사회에서는 근대의 시기적 측면과 가치적 측면이 어느 정도 일치되어 건축에 시대상황이 반영된 반면에 동양에서는 근대화가 느리게 진행된 국가에 있어서는 근대의 시기와 가치적 측면이 어느 정도 시간상 간격을 두고 표출되었다. 따라서 근대건축이라는 상황은 서구에 한정된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다는 전세계에 걸쳐 일어나는 보편적인 상황으로서 단지 지역과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그 시기상의 앞서고 늦음과 그리고 표현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이라는 상황하에서도 근대적 성격 즉 근대성을 최소한도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와 질적으로 연속되어 오늘날을 이루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삶과의 동일성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시기상으로 살펴본다면, 개화기 혹은 그 주변시기를 근대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른다. 곧 서양 및 일본의 문명이 한국에 영향을 끼침으로서 이루어진 시기범위를 근대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 즉 가치적 측면에서 본격적인 근대의 시작은, 근대라는 역사적 상황이 개인의 행동에까지 나타나야 하고 역으로 개인의 행동이 역사적 사건의 성격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의 인식은 한국의 문화 분야에서 볼 때 각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학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훨씬 빠른 시기에 근대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작품에 반영되었다.

건축은 근대에 대한 자각이 늦게 나타난 대표적 분야로서 이는 다른 분야와 달리 사회, 경제적 여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건축자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건축분야는 타 분야와 같이 근대라는 상황하에서 발생한 유사한 논쟁점을 공유하지만 다른 한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 성격 규정을 타 분야와 달리 폭넓게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서의 근대 및 현대 건축의 성격규정을 단지 시기상의 문제, 또는 양식상의 문제만으로 볼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건축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 개화기의 건축은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의 작업이었고, 일제시대의 건축은 일본인 건축가들의 작업으로서 한국인에 의한 우리들의 건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본격적인 한국인에 의한 건축작업은 해방이후로서 1950년대 중반 이후가 되어서야 활발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건축은 외형상으로는 서구의 정상적인 건축 전개 경로를 따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이 시기의 건축상황은 연속적 이라기 보다는 불연속적인 측면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 근대건축은 건축형태의 변화만을 통하여 단편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와 작가의 성향을 중심으로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건축적 양식의 변화에 있어서 상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 또한 제주라고 생각 한다.

제주는 지역적이고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독특한 문화양식을 형성하여 왔으며, 삶에 바탕을 둔 건축적 형태도 상당한 독자성을 유지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지리적 혹은 정치적 상황에 의하여 타지방보다 근대화와 현대화 과정이 다소 늦게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근대화·산업화 과정 속에서 제주의 독특한 건축 문화양식은 많은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모든면을 내포하고 있기 마련이다. 정치적 논리와 사회 문화적 논리, 경제적 논리, 등 어느 가치관에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최근에 “제주 적인” 것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축이 가지는 영향력이 정치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들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한 세기를 마감하려는 현 시점에 서서, 제주 사회에서의 근대건축 양식과 현대건축 양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정리해 보는 것에 배경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1876년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근대·현대건축사적 구분을 통하여 각 시대별 발전과정과 건축적 특성을 정리해 봄으로서, 독특한 문화양식을 지닌 제주 건축의 근대·현대건축으로의 도입과 전개, 계승 발전되어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준비해야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I-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서구의 근대건축이라는 용어는 시대적 구분 측면과 양식적 측면에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시기상으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의 건축을 의미하고 내용상으로는 당시 서구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건축을 말한다.

한국에 있어서 근대란 외국세력에 대한 개항 시기인 19세기말과 일제침략이 본격화된 20세기 중반까지로 보아야 하며 이후 새로운 정부수립과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한국의 발전을 추진하였던 1970년대 이후는 현대화시기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러한 맥락은 제주의 건축에 있어서도 같다고 본다.

제주건축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19세기 이전의 민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근대 및 현대 건축물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

구의 방법론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의 근대성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한국의 근대건축에 대한 기존 연구의 기점 분류에 대한 고찰을 통해 건축분야의 근대성 논의를 제주의 근대건축과 연결시켜 아직까지 기존의 전통건축에만 치중된 제주 건축에 대한 연구를 제주 근대사의 연장선상에서 역사적 자료와 문헌과 사진 기록 등을 통하여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의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1876년 이후의 近代建築과 現代建築의 전개과정을 中心으로 개화기의 시대 상황과 동시대의 건축을 돌아보고 한국 근대건축이 서구사회에서 정의되는 근대화 및 현대화의 의미를 파악, 정리

둘째, 제주지역의 발전과정과 시대적 가치 개념상의 근대화 및 현대화로의 접근 방법에 대한 고찰

셋째, 제주지역의 근대 및 현대건축에 대한 고찰을 통한 제주건축의 계보 작성 작업

등을 통하여 건축물별 시대성, 장소성 및 역사성을 검토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I-3 研究의 內容

본 연구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본 연구의 틀을 정립하는 단계로서 근대성과 건축의 근대화 과정, 한국 근대건축의 성격, 근대 한국건축사의 시대적 구분 및 특성과 제주건축에 있어서 건축사적 시대구분과 성격 그리고 근대성과 근대·현대건축사라는 용어의 정리와 시대적 구분의 적절한 접근 및 분류를 기하여 中世, 近代, 現代라는 큰 시대적 분류의 정립 속에서 이들 개념이 우리 근대건축 분야에 어떻게 정립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분류한 근대와 현대의 시대적 구분에 근거하여 제주의 근대건축사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타지방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의 제주 사회는 1987년 개항이래 일제 식민지 과정과 해방 정부수립, 그리고 지역개발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제주지역의 근대성과 전통 건축적 양식에서 현대건축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1800년대 후반의 서구 근대 건축과의 만남이 있는 「태 동 기」라 하고, 1900~1945년의 일제 식민지하의 시기를 「절 충 기」, 그리고 1945~1960년의 시기를 「발 전 기」로 구분하여 제주사회의 변화와 건축적 특징을 정리했다.

제4장에서는, 현대 건축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본격적으로 제주도가 개발되어지게 되고, 1980년대에 와서 무 분별하게 불어온 개발에 대한 반성과 자각이 건축적 형태로 시도되는 1971년~1980년을 「전 개 기」, 제주개발의 정책적 추진시기를 「정 착 기」 그리고 제주건축에 대한 새로운 건축언어성에

대한 모색의 한계성과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1991년~현재로 이어지는 『모 색 기』로 구분하여 한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제주사회의 건축적 특징을 정리하였다.



II. 근대시기의 한국의 근대건축

II-1 근대화의 과정과 근대건축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시아는 중국이라고 하는 정치, 군사, 문화적 강대국을 중심으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지구상에서 중국이라는 국가가 매우 넓어서, 중국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면, 중국의 서쪽, 남쪽 등에도 나름대로 특색 있는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지역은 오랜 기간 한자를 공용문자로 사용하며, 유교문화의 세계를 이룩하고 있었다. 중국을 지배하였던 민족이나 세력은 역사적으로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 오랜 역사를 보면, 그 밑에는 한민족(漢民族)이 커다란 맥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족이 중국에서의 모든 분야를 선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는 이러한 큰 힘을 갖춘 중국을 중심으로 하나의 정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속에서는 중국대륙에서부터 한반도로, 또 일본열도로 여러 분야의 문물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목구조의 골조 및 벽체, 그리고 김정기와를 얹은 지붕 등으로 비슷한 건축물 구성법을 취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동안 이러한 틀 또는 질서 속에서 하나의 문화적 성격을 구축하고 있던 이 지역에 19세기에 들어서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이는 유럽과 미국의 제국주의가 동남아와 남미를 거쳐 이 지역에 그 세력을 뻗치게 된 때문이었다. 이 지역에서 구미로부터의 영향이란, 한자 문화권에 로마자 문화가 들어와 사회 각 분야가 변화한 것이었다. 당시 이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제국주의는 19세기 말경 독점단계로 나아가고 있던 자본주의의 최후단계의 것이었다. 즉, 식민 제국주의 본토에서 자본의 집중, 자유경쟁의 배제 등으로 축적된 자본이 필연적으로 이윤을 찾아서 미개발 후진국에 투자되고,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한 자본은 식민지 지배를 국가정책의 중심으로 삼게 하며, 식민지는 강대국들의 세력권다툼의 장이 되는 것이었다.

구미의 물결이 밀려들자, 오랫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 속에서 움직여 오던 이 지역 각국이 놀라 깨어나며 나라 문을 열고 로마자 문화권의 서양을 받아들이고, 배우려 하는 것에서 이 지역의 근대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근대라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건축적으로 근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산업혁명 이후 공업화에 따른 생산체계의 변화, 도시화와 상업주의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기능을 가진 건물의 탄생, 서양인들이 심어 놓은 서양식 건물의 유행들이 일어나는 개항기 이후를 이 지역에 있어서 근대의 시작이라 하겠다.

동아시아 3국에서 우리 나라는 가장 늦게 개국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

처럼 외세에 대항할 자생력도 갖추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을 때 우리보다 한 발짝 앞서 서구를 받아들인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1945년까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길을 걷게 되었다. 한일합방 전까지 서양식 건축의 도입은 어느 정도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한일합방 후의 수십 년간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본열도의 건축 사항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었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건축에 대하여 논하고 근대를 받아들인 것은 해방 이후일 것이다.

위의 두 나라의 근대건축 발전단계를 보면, 서양식 건축과 근대주의 건축을 받아들이다가 근대에서 현대로 접어드는 전환점인 1945년에 임박해서는 민족주의 또는 내셔널리즘이 고조에 달해, 건축양식도 지나온 역사의 전통건축에서 요소를 찾아내어 탐색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단계로 가는 공통점을 볼 수가 있다.

건물의 외관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오랜 세월동안 목조건축과 한자 문화권의 질서 속에 있었던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슷한 양상이라 보여진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이 1960년대 중반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 물론 그 전에도 제관양식(현 민속박물관, 개성박물관 등)과 철도역사의 전통양식 複寫(전주역, 외금강역 등)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본인의 내셔널리즘이나 여행자들의 여정(旅情)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 건설된 것들이었지, 우리의 손에 의해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19세기말에 서양에 대하여 문을 열고 서양을 근대라고 생각하고 배우기 시작한 때에는 동아시아 3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비슷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그 양태가 달라져, 중국과 일본에서는 1930~40년대에 경험하였던 것을 우리는 1960년대에 와서야 「전통과 현대건축」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¹⁾

우리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아시아 대륙 동쪽에 뻗어 있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왔었다. 무려 976회의 외침을 당하고도 한민족은 멸망하지 않고 꾸준히 일어서서 유구한 역사와 민족자존을 지켜오고 있다.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구미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 세력들이 한반도로 밀려왔는데, 그것이 바로 1866년 프랑스의 강화도 내침(병인양요), 그리고 5년 후인 1871년 미국의 조선 원정(신미양요)이다.

이와 같이 두 번에 걸친 서양인의 침략을 받은 조선은 중대한 정치·사회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이 대두된 것이다.

1) 윤인석. 성균관대. 플러스건축잡지. 1991년11월호. 동아시아에서의 근대와 건축문화 수용. p.126-131

그중 하나가 “주자학의 전통을 지키고 서양 천주교를 배척한다”는 위정척사(爲政斥邪)사상이다. 즉, 개항이 되면 서양사상이 침투와 사교(邪敎:천주교)가 널리 사회에 퍼지게 되면서 유교적 전통질서가 붕괴될 것이므로 서양 오랑캐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개항을 반대하고 쇄국 양이(鎖國洋夷)를 고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체의식을 고취했으므로 위정자를 비롯해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 또한 신미양요시 개항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바이다. 이제 서양 오랑캐의 간사한 독이 사방에 퍼지고 있지만, 오로지 우리 조선만이 이에 물들지 않고 홀로 그 예의를 깨끗하게 지켜내려 오고 있다. 병인양요 이후로 양이를 물리친 것은 천하에 자랑할 만한 일이니, 이제 이러한 양이 들이 침범해서 화친을 요구한다 해도 우리는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당시 태서문물에 눈뜨기 시작한 진보적 지식인들이 주창하고 나선 개화사상이다. 원래 이 개화라는 말은 “만물의 뜻을 개통하고 천하의 임무를 성취한다”는 개물성무(開物成務)와, “백성을 교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만든다”는 화민성속(化民成俗)의 두 머리글자를 따서 개화(開化)라는 새 용어가 생긴 것이다.

결국 “일반 국민의 지혜를 열고 선으로 이끌어 아름다운 풍속을 만든다”는 뜻이다. 개화사상은 서양의 계몽사상과 상통되는 문명화의 개념이다. 계몽사상은 절대주의 국가의 사회체제인 구제도에 신음하고 있는 민중들에게 근대화의 성격과 방향을 가리킨 사상이었다는 점에서 개화사상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명치유신(1868)이후 최초의 구미 시찰단이 귀국 후 「문명개화」라는 용어가 유행하면서 서양문화 섭취에 전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한편 청나라에서는 자강(自強)운동이 곧 서양문화 수용을 의미했다. 이를 양무(洋務)라고도 하는데, “양이를 제압하려면 서양기술을 습득, 부국강병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개화사상은 문호를 활짝 열어 서구 열강과 통상을 하고 서양문화를 받아들여, 서양기술을 익혀 부국강병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쇄국을 반대하고, 개항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이다. 조미 조약 체결을 정치적으로는 종래 전통적인 조·청간의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신생 독립국가의 자격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점과 문화적으로는 구미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조선개항을 성취한 후 개화파 내부에서 두파로 분열되기에 이르렀다. 하나는 청나라의 자강운동을 본받아 개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려는 온건 개화파로서 이를 친정적 수구·사대당이라 하였고, 민영익이 영수라 해서 민씨 사대당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덕천막부(德川幕府)를 타도하고 명치유신을 일으켜, 근대화를 성취한 일본방식을 본받으려는 급진개화파로서 이를 친일적 개화·독립당이라고 하였고, 김옥균·박영효·홍영식·서광범 등은 청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일본방식에 따라 적극적 근대화 운동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자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고수하면서 서양기술만 수용할 것을 주장했고. 후자

는 서양기술 뿐만 아니라 제도·사상·종교까지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영국의 대아시아 정책 기본노선은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의 군사교관 초빙과 결부시켜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 움직임을 영국에게 군사적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영국은 러시아의 한반도 침투를 저지하고자 함대를 동원하여 거문도(巨文島)를 점거하고 이에 대항했다(4.15).

이제 한반도는 일·청·러·영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고 말았고, 조미조약체결을 계기로 조선은 구미문화를 수용하여 근대화운동을 즐기치게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된 것이었다.

그 실패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정치사회의 불안정, 거둬들인 정변으로 근대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 미봉책에 그치고 말았다.

두번째는 재정의 문란이다. 그 당시 조선 정부의 재정은 거의 파탄 상태이다. 초빙교사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근대화사업을 전개할 자금이 부족했던 것이다.

세번째는 조선정부의 주체성 상실과 외세 의존정책으로 말미암아 일관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진 것이다.

네번째는 개화운동의 기수들은 열성을 가지고 근대화운동을 벌였지만, 그 당시 전통과 보수사상이 뿌리깊은 사회인지라 개화운동을 고무적으로 북돋아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했고 또한 개화운동의 계승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데 그 한계성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인 다섯번째는 위로부터의 수직적 개혁은 단행되었지만 개화운동이 민중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근대화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기층민중의 국민복리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 일부 양반 특권층을 위한 개혁운동으로 그쳤기 때문에 한국의 개화운동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²⁾

20세기 한국 근대 및 현대건축의 성격과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서양건축이 어떻게 우리의 전통과 근대사이에 접목되어 왔는가 하는 점이다. 1876년이란 시점으로 유럽은 하나의 건축풍으로 묶여 지며 울타리 없이 통합되고 있었다. 그것이 극동 아시아와 다른 점이었다. 유럽은 타 세계 즉 북미, 아메리카, 인도 등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서구적 체제로 장악해 나아갔다. 그들의 식민지 개척은 미화되었고 유럽의 건축도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갔던 것이다. 정부와 군대와 종교는 협력자이며 동시에 동업자이기도 하였다.

19세기초 동아시아는 르네상스시대부터 동서양을 접속하는 절점(node)이었다. 유라시아인에 의해 이름 붙여진 서양건축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며 변화하였다.

최초의 전이(轉移)는 인도와 같은 열대지방에서 그곳 건축과 융합되었으며 이것

2) 김원모, 월간플러스, 한국의 근대화운동과 서양문화 구용, 1991년 10월, p.124-125

이 다시 동아시아로 옮겨졌다. 마지막 전이는 중국, 대만, 만주, 일본으로 이어졌으며 조선이 그 종착역이었다.

대서양, 태평양 건너 극동 즉 중국 일본 한국은 그들의 연장 해안이었다. 즉 이곳은 멀어서 늦어졌을 뿐이었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건축의 시험장이었다. 이 전이물들은 수혜 받은 층의 전유물이었고 과시적이었으며 백성들에게는 경외로운 것이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근대건축 보여주기를 당해야 했지만 반대로 그들로부터 신건축 기술을 간접적으로나마 배웠다는 입장이 있다.

東은 西를 수용하는 측면이 주된 것이었지만 동이 서에게 준 영향도 적지 않았다. 로코코 시대에 퍼진 이집트, 인도풍 그리고 중국과 일본풍에 대한 동양취미의 예술(orientalism)이 바로 그것이다. 그 시대 서양은 동양을 환상의 오리엔트라고 불렀고 이러한 동양과 서양의 실제적인 만남은 F.L wright에 의해 완성되어졌다. 그 예로는 동경 제국 호텔을 들 수 있다.³⁾

우리는 경복궁 중건(1865)이후 쇠국과 부조리에 빠진 조선정부는 서양건축술의 발전상을 알 수가 없었다. 조선은 19세기 기본적인 인식인 근대화로 시야를 넓히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수탈과 약취에 휩쓸리게 되었다. 조선은 차츰 서구열강들의 독무대가 되었고 이양선과 함께 건축가들도 따라 들어오게 되었다. 서양건축의 유입은 제물포를 비롯한 개항장에서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서양의 신건축 즉 이양건축이 되었다. 서양의 근대건축물들은 급속도로 전이되기 시작했다. 그것도 중국과 일본을 통한 2차적인 전이가 대부분이었고, 러시아도 이에 끼여들었다. 미국의 힘이 미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한참 뒤였는데, 직접적인 도입이라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불가능 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 아직 일본, 중국이란 나라들도 근대건축을 정립시키지 못하고 서양으로부터 혼란받고있는 수준이었다.

우리의 근대건축에 있어서 이시기(1876-1910)는 매우 중요한 절정기였음에는 틀림없다.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한반도 도처에는 그런 데로 몇 채의 근대건축물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었다. 개항장, 서울을 중심으로 한 외교업무시설과 그 지원시설(숙소, 상점, 등) 그리고 종교건축물(천주교, 기독교, 등)은 규모는 적으나 그 선두주자였다. 그리고 전기와 기차의 도입에 의한 제반 사회 기반시설도 따라붙기 시작했다. 교육시설도 마찬가지였다. 이 건물들 대부분의 건축가, 시공자는 일본 혹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 세워져 나아갔고 단순 노무만이 우리의 참여의장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나마 우리의 異樣건축물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1910년 조선이 일본에 의해 합병되어 버리면서 우리 것이라 할 수 있는 근대건축물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게되었다. 또한 외부의 세계로 통하는 길목도 일본 하나 뿐이었다.

일본인들은 유럽에서 받아들여 경험하였던 서양식 건축물들을 일본풍이라는 필

3)김정동,월간플러스,동·서양이 접속하는 결절로서의 근대건축,1991년10월, p.138-143

터를 통하여 한반도에 이입시키려 하였다. 또한 조선은 만주, 시베리아로 가는 길목으로 전략되어가고 있었다. 이 시대에 그런 대로 자기의 건축언어를 가진 건축물이라고는 천주교성당 및 교회건물들 뿐이었다. 현대한국의 건축적 비극은 이미 이때부터 싹트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건축의 신교육도 받을 수 없었고 또한 국민적 관심도를 가질 여유는 더더욱 없었다. 전통적 건축가(匠人)들은 대부분 목수의 길로 잠적해 들어갔고, 국내의 건축교육이 시작되었을 때는 이미 일본의 건축가들이 자신의 자리를 화고히 다지게 될 때였다. 그들은 이미 서양의 금술과 연미복을 걸친 신사로 탈바꿈한 상태였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상투잡는 시절이었고 중국은 전족시기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그들의 신건축을 세우기 위해 한국의 전통적 장소성을 마구 훼손시켰고 그들의 능력을 시험해보기도 하였다. 그들이 남기고 간 자리에 한국의 근대건축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한 것은 한참 후였다. 몇몇의 자생적 건축가, 제2의 교육(일본인에 의한)을 받은 건축가, 그리고 해외 유학을 한 건축가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때였다.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 1945년 “해쳐 모여”할 시기에 우리는 또 한번의 비극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미군정으로부터 건축이 시작되었고 몇 년 후에 온 국토를 불사르는 6.25의 참극을 맞이하였다. 그나마의 건축물마저 파괴되었고 건축자료들마저 소실되었다. 휴전이 되면서 미국 공병대에 의한 지원시설이 부흥이라는 구호아래 이 땅에 새로 들어서게 되었고 이후 살아남은 신세대의 건축인들은 무에서부터 출발하는 신건축을 시작해야만 했다.⁴⁾

서양의 근대건축과 한국의 근대건축을 서로 단절된 존재로만 보아왔고 근대라는 단어의 정의도 서양적인 사고로만 거론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의 근대건축은 관심조차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근대건축도 막연히 일본의 영향이라고만 치부해왔다. 이 과거의 유전자는 건축가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식 속에도 깊이 배어 있어 한국의 粘性건축이 일본의 水性건축과 같다는 인식이 성립케 된 것이다.

8.15해방 후 왜곡된 판단과 논리적 결여로 인해 근대건축의 입지는 제대로 설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근대건축이라 하면 우리 스스로 일본과의 관계성만 앞세우는 시각을 버려야할 때가 왔다고 본다.⁵⁾

II-2 근대성 표출을 통해본 한국 근대건축의 성격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은 산둥반도와 대만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경제적 침탈과 내정간섭으로 인해 반일 의식이 고조되고 있었다. 또한 조선정부에서는 민비를 중심으로한 친러적인 인사들을 기용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4) 김정동, 플러스, 근대건축과 사회, 문화의 접속, 1991년 10월호, p.122-123.

5) 김정동, 월간플러스, 동·서양이 접속하는 결절로서의 근대건축, 1991년 10월, p.143

친러적인 경향을 타계하기 위해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을미사변 직후의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새 내각은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시켰다. 그러나 이들의 개혁은 일본의 무력간섭 하에서 급격히 추진되었으므로 현실과 동떨어진 내정개혁은 일반민중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을미사변으로 인한 의병들의 항거운동의 영향으로 정국의 마비현상과 중앙과 지방과의 단절을 가져 왔다.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친러파는 국왕을 러시아공관으로 옮겨가는 사건인 아관파천을 일으키게 되고 정국은 반전되어 친일 내각은 물러가고 친러 내각이 들어오게 되었다.⁶⁾

아관파천이후 러시아는 반도의 침략 선구자가 될 수 있었다. 더욱이 미국, 영국, 불란서 등은 자국의 국내 사정에 의해 조선에 대해서만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격화되어 가기만 하였다. 당시 일본은 조선에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세력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조선침략의 야욕을 채울 수가 없었다. 아관파천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일본의 세력이 퇴조하고 러시아의 입김이 거세게 들어오게 되지만 경제적인 입장에서 일본은 여전히 조선에 집요하게 파고 들어오게 된다. 결국 조선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치적으로 러시아 등에 예속되고 경제적으로는 일, 러 등 자본주의의 열강에 이권을 속속 내어 주었다. 이들 자본주의 열강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견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 러를 선두로 한 제국주의 침략의 세력을 통하여 지위를 유지해 가려는 봉건주의 지배세력과 침략을 반대하고 봉건주의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민중층으로 점차 나누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국왕이 궁궐을 버리고 외국 공사관에 물러나게 되고, 나라의 이권은 점차 외국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비난이 집중되고 국왕의 조속한 환궁을 요구하는 여론이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사회여론으로 형성되게 되었고 마침내 고종은 경운궁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그러나 고종이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으로 옮긴 것을 러시아, 미국, 영국, 등 구미 여러 나라들 공사관의 보호에 의지하려고 함이었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독립협회의 여론 환기에 따라 일반국민에게 국가의식이 앙양되고 국왕에 대한 황제칭호 사용과 새로운 연호의 제정을 기하여 국호를 개정 하므로써 국운의 신기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종은 건양 이라는 연호 대신에 광무라 고치고 왕을 황제라 칭하여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으며, 또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하여 중외에 독립제국임을 선포하였다 (광무원년 1987.10).

이것은 국민 여론의 승리라고 할 수 있으나 겨우 구미열강의 세력 균형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러 구미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여러 가지 약점을 지니고 있었으나 한국정부에 대한 러시아공사의 간섭은 그 후에도 계속되

6) 국사학과연구실, 한국사해설, 영남대학교 출판부, p.262-264

었고 이에 따라 구미제국 또한 한국에 있어서의 이권 획득에 더욱 혈안이 되었으며 일본도 기회만 있으면 이권을 독점해 나가기에 급급하였던 시대상황이었다.⁷⁾

1876년 개항이 되면서 한국의 근대건축은 새롭게 출발하였다. 그 시기 이후의 건축들은 신문화와 신문명의 엄청난 세력에 맞부딪치어 이겨낸 것들이었다. 유럽이 원조인 초기 양풍 건축은 일본, 중국, 동남아에도 스며들어갔으며 한국에서는 신부선교사 외교관들에 의해 이입이 시도되었다.

개화기 건축은 형식상으로는 개항이후(1876)에서 한일합방(1910)에 이르는 기간의 건축을 말하지만 내용상으로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 때부터 일본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므로 시기구분에 난점이 있다. 이 시기의 양식건축의 유입상황은 구미열강과 일본에 의한 절충주의 식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중 구미열강에 의한 건축은 주로 자국의 공관계통과 천주교와 개신교계통 그리고 개항지 외국인 거주지역에 건설된 것들이다. 그러나 구미의 건축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에 의해 한국정부가 외교권을 상실하자 종교계를 통한 양식건축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 유입이 단절되고 만다. 구미 각국의 공사관은 주로 정동지역에 1890년대에 건설되었다. 주요 건물로는 영국공사관(1890), 프랑스공사관(1896), 벨기에영사관(1902), 러시아공사관(1890)이 있으며 천주교 계통으로는 명동성당 주교관(1890), 용산 신학교(1892), 약현성당(1891), 명동성당(1892) 등이 있으며 개신교 계통으로는 배재학당(1886), 정동교회(1895), 이화학당교사(1896), 외국인 거주지의 양관으로는 세창양행사택(1884), 대불호텔(1889), 알렌박사 별장(1896), 홈링거 양행사옥(1898) 등이 있다.⁸⁾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은 동양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로 등장할 수 있었다. 일본군벌에 의한 지배체제를 일본 재벌에 의한 식민지 지배체제로 재편성하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일제의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는 경제적 약탈, 대륙침략을 위한 군사기지로 삼을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무단군사 통치체제로 나아갔다.⁹⁾ 또한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일단락 되고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있었으므로 한국은 일본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식량 및 원료 공급기지가 되고 일본공장제품의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하에 식량증산을 위한 수리시설의 확충 및 공업자원개발을 위한 강력한 금융정책이 요청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식산 은행이 설립되었고 가일층 경제적 착취를 서두르게 되었다.¹⁰⁾

1919년 3.1독립운동은 한국근대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 거족적인 민족저항 운동에 부딪혀 일제는 식민지통치의 방향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민족운동은 언론 및 교육을 통한 민족계몽운동과 한국에 침입한 일제

7) 국사학과연구실, 한국사해설, 영남대학교 출판부, p.268-269

8) 정태용, 한국건축에 나타난 근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4, p.152

9) 국사학과연구실, 한국사해설, 영남대학교 출판부, p.290

10) 국사학과연구실, 한국사해설, 영남대학교 출판부, p.295

자본에 대항하는 민족기업의 육성운동인 물산 장려운동 등 특징적인 위상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3.1독립운동 이후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라 말하는 회유정책으로 바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자유를 어느 정도 완화하게 되었다.¹¹⁾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제국주의는 대륙침략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 나아갔다. 그리하여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한 다음에 사회주의인 만주국을 수립하게 된다. 그리고 1937년 7월에 중·일 전쟁을 일으켜 양자강 일대까지 점령하게 되었다.

식민지 시기의 한국의 정치, 경제 변화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변화와 일본 자본주의 발전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었다.¹²⁾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1기는 1906년 2월 통감부 개설 때부터 1918년 토지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이고 제2기는 제1기 이후부터 1929년 세계공황 돌발까지의 시기이다. 그리고 1929년 가을의 대 공황을 전기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제3기로 들어간다.¹³⁾

일본 식민지 지배정책의 제1기에 해당하는 1910년대에는 일제에 의해 식민지 지배와 착취를 위한 토대가 되는 기초적인 시설인 교통, 운수, 항만, 통신 시설의 확장 정비, 그리고 근대적 화폐, 금융, 재정체계를 마련하는 시기로서 근대적 토지 사유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했던 토지조사사업이 끝나는 1918년 11월까지를 1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조선총독부 관제에 의해 식민지 통치에 편리하게 행정과 사법기구를 재조직하여 행정강화에 주력하였던 시기이므로 행정기구의 확장으로 오는 불가피한 결과로 시설 면에서는 관청을 비롯한 관립학교, 은행, 교통 기관 등이 많이 지어졌다.¹⁴⁾

한말의 혼란기와 일제시대에 건축된 서구풍의 근대 건축물들은 국내에서 주도적인 수용태세를 갖추지 못한 시기에 유입되었거나 타율적으로 이식됨으로서 전통 건축과의 단절을 초래케 하였다.¹⁵⁾

식민지 시대의 건축 형태는 시기적으로 보아 2가지 성격을 드러낸다. 그 하나는 1910년 이후 1925년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짐으로서 행정적 측면과 총독부 주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의 건축이 어느 정도 끝나 가는 시기이다. 총독부 주관의 관청건물은 그 본질적 성격상 권위적인 건물형태를 선호했고 구체적인 형태로는 절충주의 양식을 나타냈다. 반면에 1925년 이후부터는 일

11) 국사학과연구실, 한국사해설, 영남대학교 출판부, p.317

12) 국사학과연구실, 한국사해설, 영남대학교 출판부, p.322

13) 전석담 외2인공저, 조선근대사회 경제사, 이성과 현실, 1989년 재인용

14)김정임, 일제시기 한국근대건축의 건축적특성에 관한연구, 연세대석사논문, 1994년, p.7

15)김정임, 일제시기 한국근대건축의 건축적특성에 관한연구, 연세대석사논문, 1994년, p.1

본 민간산업의 한국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들을 위한 새로운 건축물들이 많이 건설되었다. 이들은 권위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 더 관심을 기울였고 형태적으로는 합리주의 건축이거나 이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¹⁶⁾

1920년대 후반부터 해방까지의 시기를 개항 이후의 서구 양식주의 건축으로 일관된 시기 그리고 해방 이후 본격적인 근대건축이 전개되는 시기로서 구분하는 하나의 시대적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 1920년대 전 후반부터 해방 전까지의 지어진 건축물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서양의 고전적 건축 형태 어휘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건축경향

1926년 조선총독부 청사 건립을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전적 양식주의적 경향은 끝나고 보다 근대적인 건물들이 출현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로 접어든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 장식적 경향은 1920년 중반이후에도 연속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1930년대 말까지 간헐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서양의 고전주의적 형태 어휘가 단순화된 경향

고전적 건축 형태 어휘가 보다 단순화된 형태로 사용되면서 한편 새로운 근대 합리주의 건축의 영향이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경향은 1920년대 중반이후에 일본 자본의 본격적인 한국 진출에 따른 상업건축물의 등장과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용의 확대, 근대 합리주의 건축사조의 도입 등의 영향으로 이 시기 건축물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셋째 근대 합리주의 건축 형태 어휘를 사용하는 건축경향

192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근대 합리주의 건축사조의 영향으로 20년대 말부터 장식이 배제되고 근대 합리주의 설계 원칙에 입각한 근대적 건축물들이 등장하게 된다.

넷째 조선식이나 화식의 절충주의 경향

앞의 세 가지 경향들이 모두 서구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들과는 달리 서구건축물에 조선이나 일본의 전통적 건축요소를 가미시키려는 시도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경향은 역사, 숙박, 위락시설, 박물관 등 특정 건축물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영향은 미미한 것이었다. 이러한 네 가지 경향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사주의적이며 양식주의적 경향과 서구 근대건축의 영향이 혼합된 건축경향이다.

위의 4가지 건축경향은 개항이후 초기의 고전주의적 양식의 건축물이 주류를 이

16)김정임, 일제시기 한국근대건축의 건축적특성에 관한연구, 연세대석사논문, 1994년, p.184-185

루던 시기와 한국인 건축가에 의하여 서구 근대건축의 도입과 활동이 중심이 되는 1945년 이후의 건축상황 사이에 위치하는 이시기의 과도기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

1920년을 전후해 나타난 절충주의 건축물들로는 적산은행(1912), 조선히otel(1914), 경성 우편국(1915), 경성전업(1929), 경성재판소(1929)등 무수히 많다.

1925-1945년 사이에 나타난 합리주의 계열의 건축물을 보면 경성 상공 장려관(1929), 신동아백화점(1931), 금융조합협회사무실(1932), 조선신문사(1933), 삼중정 백화점(1933), 천대전빌딩(1934), 총독부체신별관(1934), 조선일보사(1935), 경설기독교 청년회관(1936), 반도호텔(1938)등 다수가 있다.

연합군의 승리와 일본의 항복으로 조선은 광복을 하게 되었고 독립에 한발을 내딛게 되었다.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 회담에 의하여 독립은 약속하였고 포츠담 선언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시기의 국내상황은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대립이 날카로워 지고 있었고 미국·소련 양군이 각각 진주하였다. 남한으로 진주한 미군은 군정청을 설치하고 행정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행정을 담당한 미군은 한국에 대한 예비지식도 없었으므로 민족적 요망에 응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정치적인 무질서와 경제적인 혼란이 겹치게 되었다.¹⁸⁾

해방이후 부터 1960년대 말까지 우리 역사상 가장 격변기였다. 일제에 의한 36년간의 강점기 이후 해방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까지 3년간은 미군정에 의한 통치기간 이었다. 정부수립으로 국가의 기틀이 채 잡히기도 전에 6.25동란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겪어야 했으며 전후 복구기였던 1950년대 후반은 자유당 정치시기하에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져 마침내 4.19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뒤이은 민주당 정권의 제2공화국은 5.16군사 쿠데타를 맞게 되는 등 이시기는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였다. 또한 1972년에는 유신 헌법이 통과되어 장기집권과 독재정치는 점점 민심을 잃게 되었다.

1945년 해방이후의 건축활동은 사회적 혼란기와 6.25라는 사건을 거치면서 매우 위축되었다가 1953년 휴전 후에는 전쟁복구 사업을 시작으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1945년부터 1948년 정부수립 까지는 그다지 주목할만한 건축생산 활동은 없었다.

대부분의 건축인 들은 미군청정 안에서, 또는 그와 관계되는 사업에 종사하던가 또는 기타 관공서의 관리로 건축행정을 영위하는 부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는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건축체제가 한국인을 주체로 하는 건축체제로 재편되는 과도기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즉 식민지 시대의 건축체제가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건축주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만들어 놓은 제도는 여전히 존속했으며 한국인이 그 피해를 인식하여 수정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17)김정임, 일제시기 한국근대건축의 건축적특성에 관한연구, 연세대석사논문, 1994년

18)국사학과연구실, 한국사해설, 영남대학교 출판부, p.332-333

60년대 이전의 건축활동에 있어서 근대성은 그 외형적 변화와 함께 바로 이러한 배경적 맥락의 정치적인 무질서와 경제적인 혼란이 겹치게 되었다. 건축은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존립하는 것이기에 건축의 외적 여건들에 대한 인식과 그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짧은 시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건축은 진공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건축의 외적인 여건들에 사회적 변화가 있고 권위적인 사회에서의 건축은 어떤 요인보다도 그 존재하고있는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 이데올로기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기간 동안의 한국건축은 연속적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온 것이 아니라 식민지, 해방, 미군정 그리고 한국전쟁 등의 커다란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난 기간으로 그 발전과정에 있어서 확연히 그 단절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기간 동안의 건축이란 단순히 양식적인 변천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제반조건, 건축의 법제화와 행정기술과 생산조직 등의 총체적인 요인들에 의한 변화로 이해되어야 한다.¹⁹⁾

60년대까지 순수합리주의나 국제주의의 피상적 모방차원에서 근대주의를 수용하다가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근대주의의 수용이 조형의 개념이나 공간의 흐름 속에서 건축과 인간이 친화되지 못함을 깨닫지 못하고 무미건조함에서 벗어나고자 순수근대주의의 변용 차원에서 수정운동의 작품을 통해 나타났으며 유기적 건축, 지역성·전통성 표현, 등의 근대주의 변신의 노력들이 보여졌다. 그러나 국한된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체계적 이론이나 자아의식 없이 서양건축의 복제와 모방작업으로 끝나버린게 사실이다.

80년대에서는 서서히 제2세대 건축가들, 즉 2인의 거장과 그 주변 영향권 내에서 작품활동을 했던 부류와 해외 유학과들로 구성된다. 이 활동을 시작했던 시기로 경제적 향상에 힘입은 대형프로젝트, 올림픽 관계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하고 다변화된 프로젝트 수행의 과정 속에서 현 사회가 요구하고 앞으로 지향되어야 된다고 믿는 한국건축의 성격과 방향과약과 함께 자신의 의식을 정립해 나아갔던 것으로 보여진다.

80년대 이후의 한국건축은 춘추전국시대가 열리면서 한국현대건축가의 제2세대라 할 발군의 실력자들이 진보적 건축이념과 의식을 통한 건축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80년대 이후 한국건축의 근간을 이루었던 여러 종류의 경향 중에서 현대 한국건축의 현재좌표에서 이상적이며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사조를 나열해보면 문맥주의, 유기주의, 표현주의 등이 있다.²⁰⁾

1990년대에 들어서 한국건축에서 드러난 모습은 이전의 시기와는 상대적 풍요와 개별성의 가치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이 시대의 건축가들은 합리주의의

19) 음민정, 사회학적 해석을 통한 1945-1961년 한국건축에 관한 연구, 국민대석사 논문, 1994, p. 2

20) 방철인, 80년대의 한국현대건축, 월간건축문화, 1992년 1월, p.138-139

구조 위에 한국적 정서를 함께 담으려는 의지를 내포하는 특징이 있고 전통에 연유되어온 토착성 또는 작가마다의 개별적인 낭만성이 융합되어 독특한 시대양식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모습의 예로 한국에서는 보수적인 사회와 토착문화 자체가 포스트모더니즘과 결합되기 어려운 속성에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것은 대중문화의 자유가 그렇게 풍부하지 못했고 비교적 문화적 관성이 강한 체질에서 잡다한 의사를 가치 있게 수용할 사회적 노력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II-3 근대 한국건축사의 시대적 구분 및 특성

근대의 기점에 대한 논의는 역사학계를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건축 분야에서도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활발히 진행되었다. 타 분야가 그러하듯이 건축에서도 아직은 정설이라고 인정되는 학설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근대성 표출을 통해본 한국근대건축의 성격논의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건축 특히 근대시기의 시기구분 자체의 논의는 소모전에 불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학문적 관심이란 언제나 새로운 것이며, 때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논의 자체가 진부한 것이 되는 것도 아니다. 논제에 대한 관심도와 논의에 임하는 자세와 논리적 준비여하로 때늦은 논의일지라도 전혀 참신한 논의가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한국 근대건축의 기점설정에 대한 논자들의 견해로는 첫째 한국의 전통양식과 재료, 시공방법 등의 완전히 구분되는 1876년의 개항 이후로 보는 설(김영태, 안재락, 신재익, 김정동, 윤인석)과 둘째 우리 나라 근대건축의 맥은 전통건축의 발전 속에서 찾아 그것을 찾아 계승, 발전 시켜야 한다고 보고, 1894년 갑오경장을 그 기점으로 보는 견해(이상헌), 셋째 서구의 건축양식이 도입되고 한국인이 근대적인 건축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1919년으로 보는 설(조영무)이 있다.

이상 논자들의 시기별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윤일주(1965) : 서구식 건축의 변천과정을 체계화하였다.

- 1) 초기 양식건축 : 1900년 이전
- 2) 구한말기의 건축 : 1901-1910
- 3) 일본제국주의 전반기 건축 : 1911-1925
- 4) 일제 후반기의 건축 : 1926-1945
- 5) 해방이후의 건축

▶ 김영태(1977), 신재익(1978) :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 1) 근대1기 : 개화기-한일합방 이전 : 태동기
- 2) 근대2기 : 한일합방-해방이전 : 모색기
- 3) 근대3기 : 해방이후-5.16이전 : 정착기

▶ 안재락(1981) : 국내 건축활동, 사회, 경제적 요소 및 외국 건축활동을 고려

- 1) 한국 근대건축의 태동기 (개항-1905)
- 2) 한국 근대건축의 이식기 (1906-1927)
- 3) 한국 근대건축의 발전기 (1928-1945)
- 4) 한국 근대건축의 정착기 (1945-현재)

▶ 김정동(1982) : 근대건축이 한국에 이입되는 이식의 관점으로

- 1) 초기 이식기(1876-1910) : 개화건축
- 2) 중기 이식기(1919-1945) : 식민건축
- 3) 후기 이식기(1945-1960) : 과도건축

▶ 이상헌(1984) : 한국전통건축의 주체적 변화에 초점

- 1) 조선후기(18C) - 갑오경장 : 근세
- 2) 1894-1910 : 근세건축의 맹아기
- 3) 1910-1945 : 식민건축의 이식기
- 4) 해방이후

▶ 윤재웅(1989) : 근대건축의 전개 과정을 구분하여

- 1) 한국 근대건축의 태동기 : 1876-1910
- 2) 한국 근대건축의 이식기 : 1911-1927
- 3) 한국 근대건축의 발전기 : 1928-1945
- 4) 한국 근대건축의 정착기 : 1945이후

▶ 윤인석 : 탁지부 건축소의 설치 등에 주목하여

- 1) 제1기 : 1876년 개항 - 1897 대한제국 설립까지
- 2) 제2기 : 1897년 대한제국 설립 - 1906년 탁지부 건축소 설치까지
- 3) 제3기 : 1906년 탁지부 건축소 설립 이후 - 1926년 조선총독부 청사 완성까지

식민기 전기

- 4) 제4기 : 1926년 조선총독부 청사완성 - 1945년 종전, 식민기 후기

현재 한국 건축의 상황은 설명이 가능한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의 건축 환경이 존재해 오게 되었는가? 과거와 현재는 상호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가? 굳이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이 아니더라도 해방 이전의 건축과 현재의 건축을 연속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고리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 설정 하에서 시대구분의 논의는 좀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진정한 편의적, 수단적 사실이기

위해서도 그 자체가 목적론적이고 실체론적 대상이 될 만한 것 이어야한다.

근대는 시대 개념인 동시에 가치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 때문에 근대에 접근하는 연구자들이 방법론적 다양성은 불가피하며 그 다양성 때문에 근대 논의는 더욱 분화되고 풍부해지며, 상호보완이 될 수 있다. 근대의 논의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성격화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근대를 보았다면 그이전의 세대, 그이후의 시대에 대해서도 그렇게 계속 보아야하기 때문이다.²¹⁾

본 필자의 우리 나라 근. 현대 건축의 시기별 구분은 1800년대 후반의 서구 근대 건축과의 만남이 있는 「태동기」, 1900~1945년의 일제 식민지하의 「절충기」, 그리고 1945~1960년대 말을 「발전기」로 구분하여 제주사회의 변화와 건축적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현대 건축사는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따라 본격적으로 제주도가 개발되어지지만,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반성과 자각이 건축적 형태로 시도되는 1970년대의 「전개기」, 제주개발의 정책적 추진시기인 1980년대를 「정착기」 그리고 제주건축에 대한 새로운 건축언어성에 대한 모색의 한계성과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1991년~현재로 이어지는 90년대를 「모색기」로 구분하여 한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제주사회와 건축적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II-4 제주지역에 있어서의 근대 및 현대건축의 건축사적 시대구분 및 특성

「태동기」

우리 나라에 서구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876년 강화도조약에 의한 부산, 원산, 인천, 등이 개항되고 뒤이어 서구 제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서구 건축문화의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서울과 개항장인 부산, 인천, 등지와 지리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데다가 정치, 경제적인 불리한 여건과 도민들의 보수적성향으로 말미암아 1900년대에 와서야 종교의 유포와 경제를 목적으로 한 신부와 선교사 및 일본인들이 들어옴으로서 서구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개항이후 갑자기 밀려오기 시작한 외세문물은 제주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899년 州城內에 佛國 宣教師가 들어와 교회를 개설하여 천주교 보급전도에 힘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1907년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견하여 본격적인 포교활동이 시작되었으며 교육기관으로는 1906년 프랑스 선교사인 구마술 신부가 鄉廳 자리에 천주교 재정으로 여성 교육 기관인 신성여학교를 설립하였으며 그밖에 1907년의 제주 보통 공립학교, 사립 의신학교 등이 있었고 공공기관으로는 제주 읍사무소 등이 있었으나 건축사적으로는 새로운 서

21)정태용,한국건축에 나타난 근대성에관한 연구, 1994,서울대 박사논문, P.126-128

구 근대 건축물의 신축은 거의 없었고 기존 가옥을 개·보수하여 사용하였기에 타지방 개항지에서 볼 수 있는 이시기의 서구열강의 공관건물이나 선교사들에 의한 교회 성당 및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이나 상업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궁극적으로 제주건축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과 같은 서양 근대건축의 태동기는 생략되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아진다.

제주지방에 근대건축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 이후로 보아야 될 것이다. 그 유입경로는 3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온 區美人的 종교건축

둘째 : 일본인에 의한 관청 및 공공건축과 상업건축 및 주거건축(관사)

셋째 : 미약하기는 하나 한국인에 의한 주거 및 상업건축물

「절충기」

1910년 한일합방이후 우리 제주의 근대건축은 서구의 근대건축과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도입이 아닌 간접적 혹은 강압적으로 일제의 통치수단과 착취의 수단으로서 필요한 관공서건물 및 상업건물 및 주거건물(관사)이 대부분이었다. 단지 1930년의 제주중앙성당과 성내교회 등은 일제의 간섭에서 벗어난 서구 근대건축의 직접적 도입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시기를 절충기 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 한국인이 직접적인 자각에 의해 서구 근대건축의 도입 및 연구발전 되어진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한 식민통치나 경제수탈 수단에 위한 피동적인 건축발전 시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발전기」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오랜 일본의 식민통치의 질곡으로부터 완전 해방되었다. 동년 9월28일 미군이 연대병력을 인솔하여 제주에 들어와 일본의 항복을 받아 무장해제를 시키고 29일 스타우드소령을 군정관으로 김문희를 島司代理로 임명하면서 미군정이 시작되었다.

해방은 당시의 건축인들로 하여금 기술인력과 재료의 부족, 자본력의 열악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새로운 사회건설의 주역으로서 사명감을 갖게 하였으며 건축의 사회화와 일제식민잔재의 청산이라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해방직후의 일제 식민잔재의 청산에 대한 건축인들의 각성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의 일제 때의 제도적 답습과 건축인 들의 민족적 자각의식 결여로 인하여 물리적인 현실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일제유산의 청산과 변혁에 실패하게된

다.

1947년 8월 1일 관덕정 광장에서 경찰의 발포로 6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4.3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제주의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질곡의 역사적 비극을 남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또한 우리민족의 비극인 6.25를 맞았고 5.16군사혁명이후 박정권이 들어서면서 감귤소득의 증대와 국제공항 노선의 신설 등으로 사회여건이 변화하면서 제주의 건축은 자의든 타의든 우리도민이 직접 수용하고 발전시켜야 될 운명을 맞이하면서 제주의 근대건축이 우리도민의 주체적인 첫발을 내 딛게 되는 발전기를 맞게된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되고 일주도로 확장 포장공사가 시작되면서 제주경제는 발전의 초석을 놓게되나 중앙의 정치 현실은 유신헌법이 발효되면서 장기집권으로 인한 독재정치는 차츰 민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전개기」

제주에 1973년 그린벨트가 고시되었고 1975년 신제주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1979년 대통령이 피살되는 역사의 분수령이 있었다.

1969년부터 1978년까지 10여 년은 제주도가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용수, 도로, 전력 등 산업기반시설의 확충과 감귤 증식 등으로 1차 산업 소득이 증대되었으며 새마을운동의 전개로 제주의 미래는 밝은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우리 나라는 6.25 전쟁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노출되고 이러한 영향은 건축인의 시야를 외국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어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또한 미국의 원조경제에 의해서 미국 문물이 물밀듯이 유입되는 가운데 외국에서 들어온 몇몇 건축가 및 기술원조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건축가들을 통하여 당시의 사회적 요구로 단기간의 건설을 위하여 장식이 제거된 단순미와 기능의 합리성이 병행된 서구의 근대건축이 우리에게 급속히 수용되었다.

건축의 사회성을 주목할때 이 시기의 제주건축은 사회 현실에 대응해서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렀음을 지적 할 수 있다. 사회구조에 나타나는 종속적 성격을 건축에서도 아무런 여과 없이 반영하여 우리의 건축의 상당수가 서구건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무국적의 건축이 탄생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시기의 제주건축이 서구의 근대건축을 수용한 것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합리주의, 기능주의를 표방하고 기능과 기술을 통하여 체계적인 건축생산 시스템을 추구해온 서구 근대주의 건축은 제주 근대주의 건축의 모델이 되었으며 더욱이 서구 근대건축기를 통해 나타난 대상들과 그들의 작품들은 제주 건축계에 이상향으로서 존재하며 건축가들에게 도전 의욕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이시기의 문제점은 제주건축이 서구의 근대건축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상실되어버린 우리의 과거와 건축가들의 무이념과 인식부족에 따른 서구 근대건축의 맹목적

인 복제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의해 이시기의 건축물의 대다수는 구조적, 기술적 완결성이나 내부 공간론, 기계미학과 같은 건축적 상위 개념을 도외시한 채 일시적 실용성이 강조된 맹신적 근대화와 경제원리에 이끌려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시기는 제주건축의 전개기라고 정의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정착기」

80년대의 10.26사태와 12.12에 의한 제5공화국의 탄생과 이러한 군부독재의 연결선상에서의 제6공화국으로 변화는 과정에서 사회의 혼란이 있었고 독점재벌은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의 혼란과 경제의 안정이란 모순을 낳게 되었다. 1989년 한국개발연구원에 의해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안되었고, 이 법의 목적을 보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의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자연 및 자원을 보호하며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기타의 산업을 보호, 육성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및 관광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보다 효율적이고 손쉽게 하려는 데서 친자본적이며 반민주적 성격으로 해석되어 도민의 강한 저항을 받았다.

이러한 격동기 속에서 제주의 건축은 사회의 경제적 풍요와 대중소비 사회에 발맞추어 표현적 양상을 띤 건축물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시기의 건축은 개방적이고 애매한 다원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애매한 다원주의적 성향은 그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의 양식적 고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건축가들은 합리주의적 구조 위에 제주적 정서를 담으려는 의지를 내포하는 특징이 있고 전통에서 연유되어온 토착성과 작가개인의 개별적인 낭만성이 융합되어 독특한 시대양식을 만들어 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시기를 제주 건축의 정착기라고 정의해 보았다.

「모색기」

1990년대에 들어 제주건축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풍요와 개별성의 가치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1년 4월 19일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한·소 정상회담으로 세계 각국의 보도진 수백명이 몰려와 세계의 시선이 제주에 집중되어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시대에 현대 제주건축의 상황을 보면 80년대의 애매한 다원주의가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적립되지 못하였으며 제주건축에 대한 새로운 건축언성에 대한 모색의 한계성과 정체성은 세계의 다원주의 건축과 지역성, 향토성 모색이라는 지역정서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로 이미지화 하려는

노력으로 제주건축이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모색기로 볼 수 있겠다.



Ⅲ. 제주건축이 개화기 태동기적 근대건축과 일제하의 절충기적 성격과 특성

Ⅲ-1 1876년대-1945년까지의 태동기적 제주 근대건축과 일제하의 절충기적 성격

西洋의 근대화 문명의思潮가 아시아로 동진 해음에 따라 韓國, 中國, 日本의 三國도 선각자들에 의하여 근대화 혁명을 시도하였다.

먼저 일본이 1867년에 德川幕府를 무너뜨린 명치 유신이 그것이고, 韓國은 17년 후인 1884년 金玉均, 朴泳孝가 일으킨 甲申政變이, 끝으로 中國은 1898년 革新政治家 康有爲이 주동된 戊戌政變이 근대화의 시작이라 할 수있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과 중국의 정치개혁은 보수 세력에 의하여 무참하게 좌절되게 되고 오직 일본만이 성공하여 근대화된 개혁 정치가 이루어졌다. 그후 일본은 식민지를 확장하는 서양의 제국주의 침략을 모방하여 아시아 침략에 착수했는데 우리 나라가 첫 번째의 희생물이 되어 1910년 한일합방으로 主權을 완전 상실되고, 異民族의 지배압박 속에서 망국의 한을 품은 채 1945년 해방 될 때까지 쓰라린 고통이 계속 되었던 것이다.

제주는 경술국치 이후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 서기1914년 정의, 대정 양군을 폐지하여 제주군에 합병하고 익년 5월에는 군을 고쳐 도(島)로하고 도사(島司)가 경찰서장을 겸하게 하였다. 또한 도청은 제주 읍에 두고 서귀포에 지청을 두었으며 이밖에 지방 법원지청과 경찰서가 들어서게 되었다.

일본인은 주로 제주, 서귀포, 성산포, 한림에 거주하면서 이권사업을 점령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일본인의 거주로 인하여 도민은 모든 이권을 빼앗기게되고 일본 본토의 노동시장으로 떠나거나 끌려가게 되어 광복직전에는 일본에 이주한 도민의 수가 무려 100,000명에 달하였다.

한일합방으로부터 해방까지는 36년이지만 사실상의 일본의 지배는 합방전인 1905년 을사 보호조약 이후부터 外交權, 治安權, 그리고 통신권까지 일본이 완전 장악하고, 마음대로 군대를 강제 해산하여 高宗黃帝까지 폐위 시켰으므로 일본의 침략기간은 1905년부터 40년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40년간을 편의상 초기·중기·말기로 나누어 고찰해 보면 초기는 1905년부터 1924년까지 20년간인데 그다지 발전된 것이 없이 도민의 생활면 이나 생업인 영농 營漁부문에 구태의연한 상태였으나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 상공업을 위주로 정착하고 商權을 강점하여 일부 생필품 등을 선보였다. 그들은 민중 봉기에 의한 항일 반란 예방에 혈안이 되어 청년들의 순수한 생활개선, 계몽 활동만 벌여도 연행과 가택 수색을 감행 하였다. 그리고 보통학교를 설립하여 일본어로 근대 교

육을 실시하였으나 전통적으로 뿌리 박힌 유교 사상과 반일 감정으로 학교 교육을 기피하게 되었으며 육로 교통의 가장 빠른 수단은 말이었다.

다음 中期는 1925년부터 1937년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최초로 전등과 전화가 가설되게 되고 자동차도 들어왔으며 영농 부문에 있어서도 맥주보리가 도입되어 식재 하기 시작하고 除虫菊 및 養蠶도 장려하기 시작했으며 金肥도 공급되었다. 營漁部門에도 動力船의 등장과 어로장비도 개량되어 작업 능률이 향상되었으며 濟州 大阪間 정기 여객선이 운항되어 도내 주요 어항에 순회 기항함에 따라 도민의 일본 출가 노동이 빈번해 지게 되어졌다. 新右面, 舊右面으로 부르던 面名을 면소재 지명을 따라서 涯月, 翰林, 西歸面, 등으로 고쳤으며 濟州面이 邑으로 승격되고 교육도 학교교육으로 몰려 서당이 급격히 쇠퇴해 가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羣島 補에 중국을 폭격할 목적으로 군용 비행장을 설치하였다.

1938년 이후 말기는 일본이 전시체제로 돌입하여 우리 나라를 완전 통제하고 장악해 들어간 1938년부터 광복 해방까지인데, 이 말기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군인으로 死地에 끌려 가게되었고 노동력 있는 남자는 모조리 노동자로 징용 당하여 농어촌에는 부녀자와 노약자만 남아 榮農, 營漁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농, 축, 수산물을 비롯하여 화로, 식기, 손갈, 등 수십 종의 군수물자를 강제로 공출하고 징발하여 식량난 등이 극도에 달한 수난의 시기였다. 따라서 40년간은 착취와 약탈의 무대로 전락하여 암흑의 가시밭길에서 시련과 고난이 연속되던 비통한 역사의 시기 였던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도민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고 경제적 궁핍을 탈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뜻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계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지방에 따라서 미신타파 생활개선 운동 등도 일어났으며 방방곡곡에서 야학 소를 마련하여 문맹자를 없애고 동시에 새 지식을 가르쳐서 민족적 각성을 위한 정신교육을 고취시키기 시작하였다.

일제의 말기에는 우리 민족문화를 말살하기 위하여 우리말과 한글을 못쓰게 하고 면마다 신사를 세워 참배를 강요하였으며 성명마저 고쳐 일본식으로 개명하게 하였다.

1884년 가파도에 진출하였던 일본 어선단을 통하여 감자와 그 재배법이 전래된 후 차차 감자 재배가 보급되었으며 더구나 바람이 많은 본도에서는 최적의 구원작물임을 알게되었으며 본 도의 중요한 농작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이로인해 감자를 원료로 하는 제분제조업이 등장하게되었다. 그리고 조개류(貝類), 해조류 등의 수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슬포, 성산포, 서귀포, 협재리, 등지에는 소라통조림제조업이 생기고 모슬포와 서귀포에서는 전복과 소라 껍데기를 원료로 하는 패구(貝釘)제조업이 생겼으며 해초를 가공하는 옥도(沃度)원료제조와 툫 가공업도 생겼던 것이다.

이밖에 대규모 공업으로서는 산지항에 감자를 원료로 하는 무수주정 제조업과 한림의 쇠고기를 원료로 하는 통조림 제조업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일본인들이 주

경영진이였다.

진상제도가 없어진 후 감귤재배가 쇠퇴하던 중에 일본에서 밀감류가 들어와서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한라산의 표고재배와 양봉업도 시작되었다. 한반도의 근대화가 외래문물의 유입으로 시작되었듯이 제주의 근대건축에 있어서도 이 같은 맥락에서 살펴 보게된다.



(사진1)일제시대중앙성당

우리의 근대기에 유입된 외래문화은 크게 천주교, 기독교와 일제가 이 땅을 그들의 식민지로 삼기 위해 도입한 제도와 그 부산물들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초기의 극심한 박해의 시기가 지나면서 천주교와 기독교라는 외래종교는 선교사와 목회자들에 의해 성당과 교회건축은 물론 학교와 병원 그리고 그들의 주택 등을 세워 나가

면서 제주의 전통건축에 충격을 주었다.(사진1)



(사진2)초기의 신성여학교(1915년)



(사진3) 제주최초의 천주교성당

그 예로서 천주교는 초기에는 구 한옥을 매입하여 포교 교육하는 형태를 취했으나 그 후 고딕형태를 갖춘 본격적인 근대건축물이 1930년 12월 최덕홍 신부에 의해 삼도일동 108번지에 들어섰으며 또한 구 마술 신부는 1909년 10월 鄉廳자리에 천주교 재정으로 본도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으로 신성 여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 또한 구 한옥을 그대로 활용하였다.(사진2)(사진3)(사진4)



(사진4) 당시의 천주교 신도들

기독교는 1908년 이기풍 목사가 입도 하여 현재의 서부교회 자리(제주시 삼도 일동

905)에 舊出身廳舍를 매입하여 성내교회로 개수 설립하였고 그후 근대식 교회로 건축되었다.(사진5)(사진6)

위와 같이 개화기에 종교적이고 식민지적 목적을 띠고 정치적 후진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함께 들어오는 선교사들에 의한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워 그 지역

의 근대화의 한 축이 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건축도 생활의 일부이며 동시에 종교의 일부인 관계로서 흐르는 역사에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건축가들은 자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5)도내 최초의 교회(성내교회)



(사진6) 현재의 서부교회

1876년 개항과 함께 1867년 명치유신으로 우리보다 일찍 근대화한 일본도 대륙 진출을 모색하는 일련의 방법으로 조선을 발판으로 삼았으며 우리 제주에도 그 영향에 놓여 일본인들의 진출이 있었고 한일합방이후 본격적인 식민통치 수단의 필요성으로 많은 공공건축물이 필요에 의해 세워졌으며 그 부수 시설 또한 많은 필요에 의해 생겨나게 되었다.

1903년은 제주에 우편취급소가 생겨났으며 제주와 목포간 우편수송이 개시되었으며 우리 나라(경성)에 최초로 자동차가 들어 왔다. 제주 우편국은 1903년 제주우편취급소가 설치된 후 1905년 목포 우편국 제주출장소로 바뀌었다가 1907년 1월 제주 우편국으로 승격되었으며 1940년대에 들어와서야 전통식 지붕과 근대적 구조 및 기능성을 갖춘 절충식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 (사진7)(사진8)



(사진7) 1938년도의 제주전신전화국

1906년 11월 일본인 자제들의 교육을 위하여 鄉廳 남쪽에 제주심상소학교(제남교전신)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건축물로서의 자료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후 1907년 5월 객주대청인 영주관을 개조하여 제주 공립 보통학교(북교자리)를 설립하니 이것이 근대화 교육의 시발점인 최초의 초등 교육기관이었다. 그러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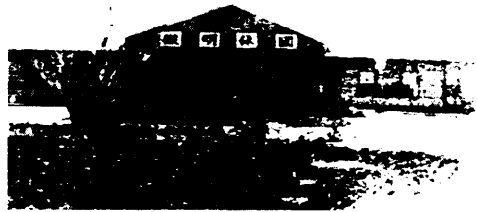
(사진8) 1940년대의 제주우체국

또한 전통가옥을 보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근대건축으로의 발전에는 아직도 제주는 타지방과 다르게 전이의 속도가 늦음을 알 수 있다. 이해 7월 오현단 앞에 중등 교육기관으로 사립 의신학교(私立義信學校)를 설립하였고, 그후 제주 농업학교

의 전신인 제주 공립 보통학교가 오현단에 세워졌으며 다시 광양으로 옮겨졌다.
(사진9)(사진10)



(사진9) 제주공립 보통학교



(사진10) 제주농고 광양교사

제주 본 도의 경찰은 고종 31년 경창청을 설치하였다가 1년여만에 없어진 후 광주 또는 목포경찰서 제주분서로 운영해오다가 1908년 경찰서로 승격되었으며 도사(島司)가 경찰서장을 겸임하였다.(사진11)(사진12)



(사진11) 제주도경찰서



(사진12) 서귀포경찰서 낙성식

1910년 10월에는 광주 지방재판소 제주구재판소로 되었다가 1912년 광주 지방법원 제주지청으로 개칭되어 1913년부터 송사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건축물 자체는 경사가 급한 일본풍의 모임지붕에 근대풍의 외관, 기능성, 구조를 갖는 일제시대의 전형적인 건축물의 형태이며 이후 일제의 통치의 수단이 되는 모든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건물 균이라 할 수 있다.(사진13) 그리고 당시 서귀포 정방여관도 전통적인 일본의 절충식양식을 보여주고 있다.(사진14)



(사진13) 제주지방법원



(사진14) 일제시대 정방여관

1910년 9월에 洋醫의 공공 진료기관으로서 자혜원이 개설되었다. (사진15) 그 후 1912년 10월에는 본관과 전염병실 및 치료실을 증설하여 자혜의원이라 명칭을 바

꾸었다. 이외의 민간 의료기관으로는 1913년 삼도동에 장춘의원, 1921년 중앙의원등이 있었고 최초의 치과의원은 김한조씨가 1939년에 개설한 송재 치과의원이다.



(사진15) 자혜의원

자혜의원의 본관은 지금까지의 건축물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입면을 갖추었다. 혹자는 고딕 풍외 파사드라고도 하나 고딕으로서 있어야 할 수직성이나 첨두아치 그리고 서구양식으로 갖추어야 할 장식의 배제로 인하여 순수한 고딕형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부득이 정의를 하자면 일본인들이 서구근대 건축을 받아들이면서 서구의 양식을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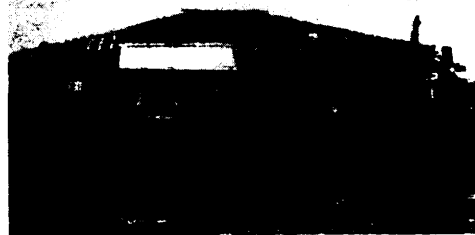
모방하여 일본식 근대건축 표현의 실험용 건물이라 보여진다. 즉, 이 당시 일본인들은 서구 근대건축의 실험장소로 식민지 나라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주의 근대건축에 있어서 자혜의원은 기존의 사교의 전환점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역사적 의의도 모르고 현대화의 문물에 밀려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야 하는 운명을 맞는다. 즉, 제1세대



(사진16) 서귀포시 전경(192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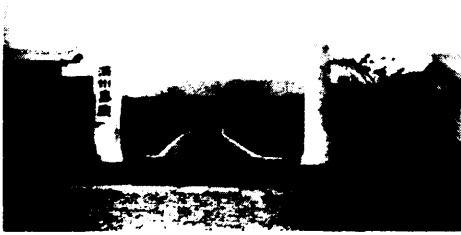
건축가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구 제주대학 본관은 신문지상이나 여론을 형성하면서 철거에 반대를 하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자혜의원이란 건물에 대해 역사적 가치의 존재조차 인식치 못하면서 무이념과 무역사적인 현대풍 기능주의적인 건물들만이 들어서 있을 뿐이다. 1928년대 서귀포시가지의 사진을 보면 당시의 도시의 규모와 전반적인 건물의 형태를 엿볼 수 있다. (사진16)

종묘장은 처음 목포지장출장소로 있다가 1913년 전남지장으로 승격되어 삼도동에 있던 것을 동문동 삼선서당 자리로 이전하였다.(사진17) 이 역시 급경사의 모임기와 지붕에 근대식 외벽과 구조를 가진 건축물로 지금의 제주시 동 초등학교에 있었다.



(사진17) 일제시대 종묘장

1916년 7월 도청은 구 동헌(東軒)을 도청사로 이용했으며 서무과, 근업과, 등을 두었고 서귀포 지청을 설치하여 지청장으로 하였다.(사진18) 원래 이 지역은 제주



(사진18) 제주도청(1929년)

도 행정의 대표적인 관아들이 자리잡아온 지역이다. 그리고 건축물로서의 가치는 다른 일반 동시대의 건축물과 같으나 건물정면에 정문이 있으며 건물 주위로 담장이 둘러졌으며 현관 진입로까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부진입로 양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조경을 하여 도청의 위계질서와 정돈된 느낌을 주어 다른 관공서와는 비교가 되고 있다.



(사진19) 수산물검역소



(사진20) 제주읍사무소(일제시대)

그밖에 1918년 수산물 검역소, 1921년 州城 동쪽의 제주 형무지소, 1921년의 제주도 영림서, 1925년의 제주 무선국, 1922년의 제주 세관, 1922년 州成北門 부근의



(사진21) 제주도영림서



(사진22) 제주무선국

제주 측후소와 1931년의 전주전매지국 제주출장소등도 동시대의 관공서 건물과



(사진23) 세무서

같이 절충식건축의양식을 보여 주고 있다.(사진19)(사진20)(사진21)(사진22)(사진23)(사진24)(사진25) 또한 당시의 상가건물은 대부분 기존 건물을 변형한 형태로 추정된다.(사진26)

제주 공립 농업학교는 한말에 설립된 3년제 농업학교였으나 합병 후 1911년 2년제 간이 농업학교로 격하되었다가 1920년 10월에 와서 3년제로 환원되고 1940년 4월에 5년제인 갑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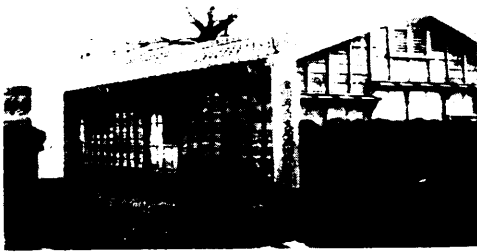
교로 승격되면서 농업과 축산과를 두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오현단 앞 교지가 그해 5월 광양 5만평 터로 신축이전하였다.(사진27)

서귀 농업 연수학교는 1936년 5월에 개설되었다. 이 건물 또한 전형적인 동시대의 절충식근대건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본인 상점은 전형적인 일본의 절충주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사진28)

산업시설 건물로는 1941년 제주주정공장이 가동되었고



(사진24) 제주축후소



(사진25) 제주전매지국 제주출장소



(사진26) 일제시대 한인상점



(사진27) 제주공립농업학교(1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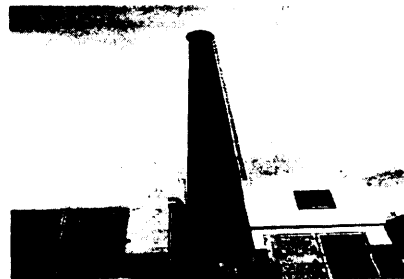
(사진28) 일본인 상점

기타 통조림 공장 등이 있다.(사진29)(사진30)

당시의 주거건축물을 살펴보면 일반 조선인은 과거의 초가형태를 아직도 벗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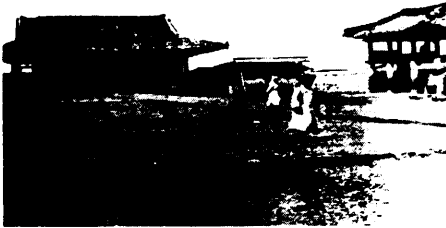


(사진29) 제주주정공장



(사진30) 통조림공장

지 못하였던 사실들이 당시의 시가지를 찍은 사진 자료들을 보대로 보면 알 수 있다.(사진31)(사진32)(사진33)(사진34) 일본인들의 주거형태도 일본 본토의 전통적



(사진31) 1890년대 관덕정



(사진32) 1890년대 산지포구



(사진33) 1900년대초 산지천



(사진34)천주교의난 수습장면

인 형식인 완만하고 단순한 기와지붕 처리와 유리창, 문 그리고 비늘 판자벽 형식 등은 현재 자료로 남아있는 관공서 건물의 관사건축물을 보면 나타난다.(사진35)(사진36)(사진37)(사진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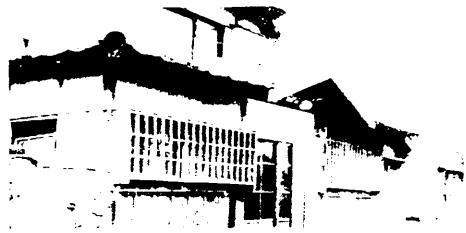
(사진35) 법원관사



(사진36) 세무서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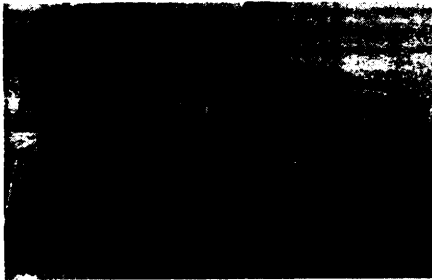


(사진37) 주정공장 사택



(사진38) 전기회사 가택

이렇듯이 제주도 건축의 근대화의 접촉기와 절충기는 타지방의 근대화와는 규모나 양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진 않지만 그 근대화의 경로나 방법에서는 많이 일치한다는 데서 의의를 찾아야 하며 그 흔적을 꾸준히 찾아 정리해 나아가야 될 것이다.(사진39)(사진40)



(사진39)제주자동차(1943년)



(사진40)조홍자동차(1947년)

Ⅲ-2 1946년대 - 1960년대의 주체적 근대 제주건축의 발전기

일제 36년의 식민지 통치가 종식을하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자 온 겨레의 환호성은 삼천리 강산을 흔들고 감격의 눈물을 금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이유로 미·소 양국이 한반도를 양분하여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하게 되자 민족의 역량은 미·소 양국을 배경으로 분열되고 좌익과 우익단체의 대립을 보게되어 사회는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 시기에 본 도에서도 3.1사건, 2.7사건, 4.3사건, 11.7사건 등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도민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8.15해방 후 먼저 행정제도가 개혁되어 본도(島)가 도(道)로 승격되어 남·북군이 설치되고 제주의 시승격과 서귀, 대정, 한림의 읍승격을 비롯하여 면, 리, 동의 증설이 있었으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시, 읍, 면, 도의회가 발족하고 교육자치제가 시행되어 시·군교육구와 도교육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밖에 농촌지도를 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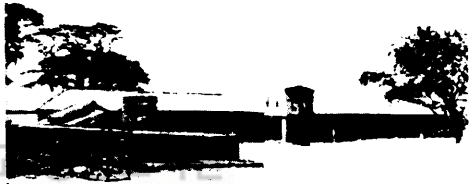
여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 축산시험장, 원예시험장이 설치되었으며 농어민 협동 기관으로서 농업협동조합, 감귤협동조합, 표고협동조합, 잠수기어업협동조합, 해녀어업협동조합 등이 발족 정비되었다.

4.3사건으로 폐허화된 본 도의 재건과 개발을 위하여 도민은 재기에 힘썼고 5.16 군사혁명이후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되었다. 도로체계의 개발로서 한라산의 횡단도로는 동서 양쪽의 노선이 개설되었고 일주도로와 횡단도로가 포장되었으며 제주항을 비롯하여 한림, 성산포, 모슬포, 화순, 서귀포항 포구가 확장 개축되고 제주비행장이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어 국내는 물론 일본, 대만, 등의 직행항로가 개설되었다. 또한 중산간지대의 개발을 위하여 산간도로가 확장 정리되어 여객자동차가 산간부락까지 통행하게되었다.

수원 개발은 어승생 수원을 이용하여 전도에 용수를 공급하는 한편 각지에 수원을 개발하여 식수와 농업용수로 공급하게 되었다. 농어촌 전화사업은 화력발전에 의하여 전도의 농어촌이 거의 전등을 가설하게 되었다.



(사진41) 오현고등학교



(사진42) 제주중학교

산업과 관광개발은 정부의 정책으로 감귤 재배를 장려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게 하였고 감자, 유채 재배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축산단지, 양돈단지가 조성되고 포도당과 유채기름의 제조업이 대두되었다.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한라산을 국립공원화 하고 제주시, 서귀포, 중문해안, 협재리해안 등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사진43) 제주여고

교육·문화 부분에서는 8.15해방이후 교육시설이 급격히 확충되어 제주대학, 제주교육대학, 제주간호전문대학, 제주실업전문대학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분포율은 전국 제2위를 점하게 되었고 민속방언 연구와 고고학적 탐구가 전개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1945년 8.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오랜 일본의 질곡에서 벗어났으나. 우리 건축계의 문제는 나라 전체의 준비부족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확대되지 못하였다. 근대화의 물결을 타의에 의한 즉 일본인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받아

들여져서 해방으로 인하여 일본인들의 철수로 인하여 건축문화의 연속성이 단절을 가져 왔으며 또한 근대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과 기술적인 지식의 부족, 사회적 인식의 방관자적 상태에서 이제야 비로써 근대건축을 몸으로 체험하며 능동적으로 배워 실천해 가야하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사진44) 도립도서관

연유에서 해방 이후부터를 우리 근대건축의 발전기라고 정의하게 되었다. 이시기는 건축에 있어서 조형의 개념이나 공간의 흐름 속에서 건축과 인간이 친화되지 못함을 깨닫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무미건조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건축에 있어서 개념 정립조차도 힘든 시기였다.



(사진45) 서귀여고



(사진46) 제주북초등학교

또한 건축가의 부재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건축가의 분류도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기술자적 사고를 갖고 건축을 접근하는 부류와 조형의 개념과 인간성 존중의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부류인데 과연 초기 발전기 그 시대에 우리 제주에는 어떠한 건축가가 존재했으며 어떠한 건축물이 존재했는가?

당시 절박했던 건축물로는 교육시설이었다. 1945년 12월 1일 오현중학교와 제주중학교가 설립 개교되었으며 1946년 제주여자중학교가 설립 개교되었다.(사진41)(사진42)(사진43)



(사진47) 광양초등학교

1957년 11월 1일에 박종실이 도서관을 건립하여 도에 기증하는데 이것이 도내 최초의 도서관인 제주도립도서관 이다.(사진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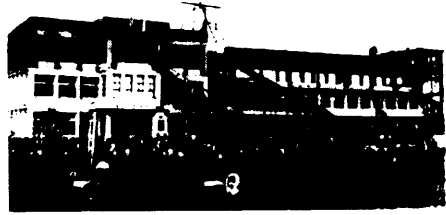
1964년 서귀여자고등학교, 제주남중학교, 제주북초등학교, 제주광양초등학교, 제주남초등학교 그리고 1965년 제주동초등학교 등이 설립되었다.(사진45)(사진46)(사진47)(사진48)(사진49)

이상의 건축물 역시 일제시대 절충식²²⁾건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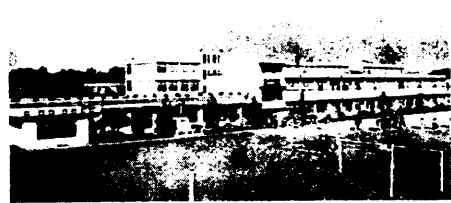
제주여자중학교의 경우는 구조가 석조이며 최초의 2층 교사라는데 주목이 된다. 도서관 역시 벽체 구조는 석조구조이다. 당시의 제주시의 전경사진을 보면 제주시의 규모와 건물을 파악 유치해볼 수 있으며 지금의 도시와의 연계된 발전 경로를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사진50)

1952년 제주초급대학이 설립 개강 하였으며 2층 한 동의 건축물로서 지붕은 모임기와 지붕이며 전면은 처마 끝에 처마를 돌려서 사각으로 보여지게 처리하였고 건물 전면 중앙에 현관 포치를 두어 건물에 초점을 둔 건축물이다.(사진51)

1962년 제주대학이 도립에서 국립제주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64년 1월 시·군 교육청이 설치되었다.(사진52)(사진53)(사진54)(사진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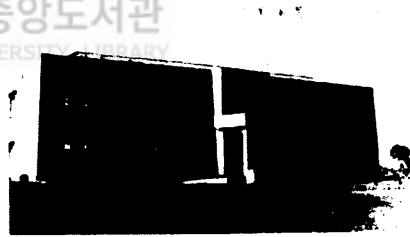
(사진48) 남초등학교



(사진49) 제주동초등학교



(사진50) 60년대 제주시



(사진51) 제주초급대학

1964년 제주대학교 구 본관이 1세대 건축가이며 한국 건축계의 두개의 축을 형성하여 한국의 제2세대 건축가집단을 교육하고 배출해낸 프랑스 르코르뷔재의 사무실에서 수학을 한 김종업씨의 설계에 의해 건립되었으나 1995년 3월 철거되었다. 그리고 1968년 제주교육대학이 설립 개교되었다.(사진56)(사진57)(사진58)



(사진52) 제주도교육청

22) 절충식이라 함은 서구의 근대건축이 일본으로 전이되어 소화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나름대로 근대식이라고 정의되는 양식이며, 양식의 모방과 장식의 단순화된 형식과 단순한 몰드형식으로 처리되는 양식을 말함.



(사진53) 제주시교육청



(사진54) 서귀포교육청



(사진55)북제주군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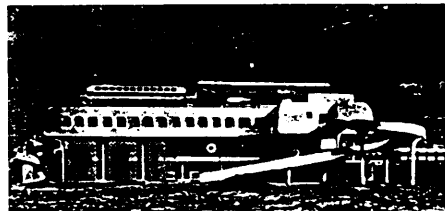
(사진56) 제주대학 구 본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구 제주교육대학은 본관의 진입이나 옥상의 가벽 및 파고라 처리는 지금까지의 양식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조형개념에 입각한 건물로서 김중업씨의 구제대본관에 버금가는 우리제주의 건축물로서 인정해야 될 것이다.(사진59)



(사진57) 제주대학 농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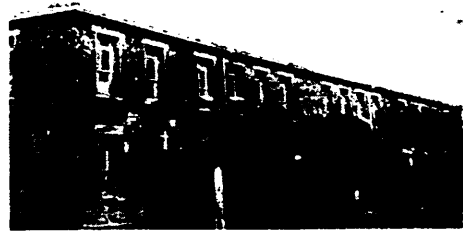
(사진58) 제주대학 본관

또한 이건물은은 현대건축의 단순성과 콘크리트 유리 연창등 르꼬르부제의 현대성 건축을 제주에다가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형상물이라할 수 있다.

또한 신성여고의 구 교사는 도내최초의 석조 2층 건물이다.(사진60)



(사진59) 구제주교육대학



(사진60) 신성여고(최초2층석조건물)

제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었고 1969년 3월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이 설립
개교되었다. (사진61)

60년대 서귀포 포구 전경 사진을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
다.(사진62)

1949년 1월3일 방화로 제주도청이 전소되었다. 1950년 중산간 부락 蔬開令이 선
포되어 중산간 부락민을 해안부락으로 蔬開 移住케 한 후 모든 건물을 소각시켜
버렸다.



(사진61) 제주국제공항전경



(사진62) 60년대 서귀포 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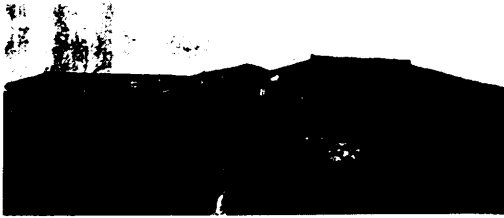
이후 4.3사건이 진화된 후 원주민 복귀주택이 주거건축으로서 건축되었고 이시돌



(사진63) 제주도청 광양청사

목장 내에 아일랜드식 B형 주거건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1952년 12월 20
일 오명록 씨의 설계에 의한 제주도청이 광양 신축청사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 청
사는 전형적인 한국고유의 지붕경사와 기와 지붕에 건물의 외부정면에 3층으로
근대식 슬래브 건물에 몰드형 장식을 둘러서 건물의 강조를 두었으며 공공건물

의 위엄성, 권위성, 질서, 및 간결하게 표현된 강직성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여지며 원래는 지붕에 다락창을 두어 채광및 통풍은 물론 미관을 고려하였
으나 지금의 건물에는 찾아보기 힘들게 변형되어버렸다.(사진63) 개·보수로 인해



(사진 64) 초기사범학교

역사를 잃어버린 감이 있어 원형보존의 아쉬움을 남게한다.

1955년 9월1일 제주 읍이 제주시로 승격되었으며 10월에 공설운동장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1959년 4월 10일 서귀포 법원등기소와 동년 4월 농촌



(사진 65) 농협도지회



(사진 66) 도내 최초 주유소

진흥원이 개설되고 5월에는 제주시시험장이 설치되었다. 1963년 농협도지회가 설치되고 동문 로터리에 최초의 주유소가 설치되었다. 또한 1963년 10월 13일 도내 최초의 관광호텔인 제주관광호텔이 개관되었다. (사진64)(사진65)(사진66)(사진67)

1963년 건축가 김한섭씨의 설계에 의한 제주동문백화점, 남제주군청사, 1966년 제주제일호텔, 제주중앙빌딩, 1967년에는 나사로병원, 제주 장산부인과의원, 제주 미도호텔,

1968년에는 제주대영빌딩, 제주도 문화관, 원호회관, 1960년에는 제주도 의회 의사당(구)이 들어서게 되었다. (사진68)(사진69)(사진70)(사진71)

1964년 제주시민회관이 준공 개관되었다. 1965년 도내 처음으로 동문 매일 시장이 개설되었다.(사진72)

시대적으로 4.3사건과 6.25 및 정치적 과도기의 시대상황을 거치면서도 제주에 이만큼이나 건축물이 보존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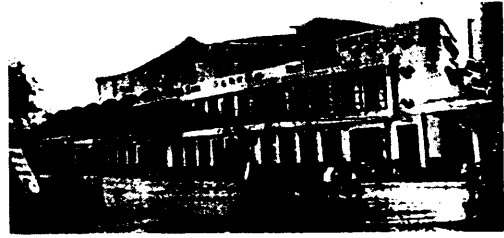


(사진 67) 도내 최초 관광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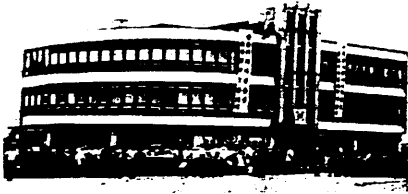
학교 중앙도서관
SANGJUNG UNIVERSITY LIBRARY



(사진 69) 남제주군청사



(사진 68) 제주동문 동양백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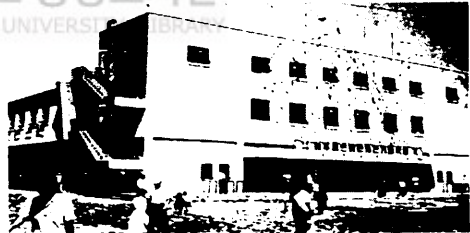


(사진 70) 원호회관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 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세월이 흐를수록 현대 물질문명과 경제논리에 떠밀려 사라질 이 시대의 산증인들인 근대건축물들을



(사진 71) 제주문화원



(사진 72) 제주시민회관

는 사실 그대로 역사로서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겠으며 그러한 민족만이 미래가 보장 되고 최고의 민족임을 자부하게 될 것이다.

(사진73).(사진74).(사진75).(사진76).(사진77).(사진78)



(사진 73) 서귀읍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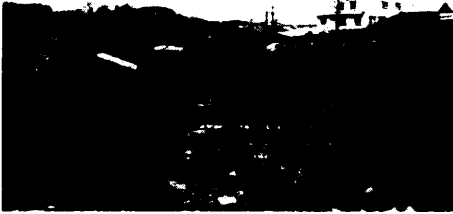
(사진 74) 중기 사범학교



(사진 75) 50년대 제주발전소



(사진 76) 제주방송국



(사진77) 산지천 복개공사



(사진 78) 60년대 남문로타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V. 제주 지역에서의 현대건축의 전개와 지역성 형성의 모색기적 건축적 특성

IV-1 1970년대 제주 근대건축이 현대건축으로 전이되는 전개기의 특성

건축은 형태와 공간적 기능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회적 변화 요인, 지역적 제반조건과 동시대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성과 역사성이 가장 잘 표출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라고 생각한다.

제주도는 지리적 관계로 인한 제한적인 인적, 물적 교류와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



(사진79) 한라산 풍경

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제주인의 삶 그 자체는 한반도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함을 지니고 있다. 1700년대에 제작된 濟州 三縣圖에 나타난 제주의 모습을 보면, 관아명과 지명, 城·봉수·연대 등의 방어시설뿐만 아니라, 한라산과 각종 오름²³⁾, 목장, 포구, 하천 등이 표기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주의 주요 경관 요소가 바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각종 오름, 목장, 포구, 하천입



(사진80) 1970년대 제주시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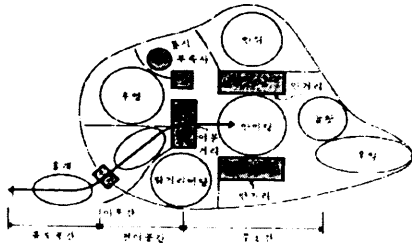
을 알 수 있고, 제주인들은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독특한 삶의 문화를 형성하여 왔던 것이다.(사진79)(사진80)

이러한, 제주적인 삶의 문화는 건축양식에 있어서도 잘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제주의 전통건축은 멀리 한라산의 영봉(靈峰)이 보이고 바다의 수평선이 펼쳐지는 원풍경(遠風景), 그리고, 완만한 곡선과 높은 담의 집을 중심으로 한 울안의 풍경으로 되어 있다.

울안은 마당을 중심으로 가족적 관계를 견지하면서도 철저한 세대구분을 하는 안거리와 밖거리의 공간적 계층화를 이루고 있는데 진입방법에 있어서는 「올래(유도공간)」, 「올래목(전이공간)」, 「안마당(주공간)」이라는 三分割的 空間構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또한 생활양식

23) 오름은 ‘오르다’의 명사형으로, 한라산중턱에 산재에 있는 360여 개의 기생화산으로 법에 의하여 개발규제를 받고 있는 제주의 중요경관이자, 자원이기도 하다. 명칭은 일반적으로 ‘~오름’ 등으로 불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산’, ‘~악’, ‘~봉’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변하면서, 世代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면 건축양식 또한 변해 가는(혹은 변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건축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81)



(그림81) 도 해 도

제주도와 제주인은 해방이후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타의적으로 변화되었거나, 혹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 변화를 추구하면서, 역사성과 장소성이 강한 제주건축의 변화와 현대건축의 유입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격적인 제주의 근대화는 1961년 5·16군사정권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의 개발은 5·16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제주도에 최초로 아스팔트도로가 건설이 되고,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었으며, 이것은 1970년대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제주개발을 두고 물의 혁명, 길의 혁명으로까지 표현되기도 하였었다²⁴⁾.

제주지역에 본격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제주 현대건축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정부는 제주도를 관광개발에 정책적 중심을 두어, 1972년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단을 구성하여 1973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73~1982)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관광지로서의 제주개발이 시작되었다.



(사진82) 제주교육대학



(사진83) 삼성혈에서 본 제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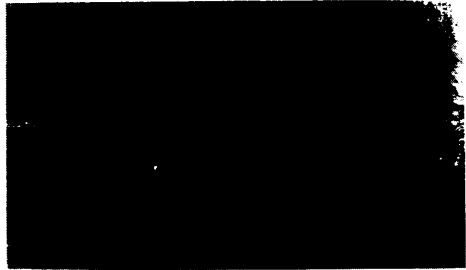
이 시대의 건축물은 관광 시설물이 대부분으로 뚜렷한 작품이 없으나, 주목할 만한 건축물로는 모더니즘적 성향이 강한 김한섭선생의 제주교육대학(1971)을 들 수 있다. 김한섭선생은 60~70년대 건축의 황무지라 할 수 있는 제주지역의 개척자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유행하였던 르꼬르뷔제의 건축 언어성이 짙은 모더니즘적 작품 성향 속에서 제주적 문화에 바탕을 둔 건축철학과 언어를 가

24) 제주도 공보과, 제주도 「新濟州」 제9호, 제주도 공보과, 1963년, p.52

지고 실험적 건축을 시도하였다. 그 대표적인 수작(秀作)중의 하나가 제주교육대학이다.(사진82)(사진83) 제주교육대학은 무장식적 요소의 강조, 그리고 그 지역의 시공능력으로 건축 가능한 구조, 지역에서 구입 가능한 재료의 사용을 기본적인 설계목표²⁵⁾로 설정하는 등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노력이 엿보인다.



(사진84) 제주KAL호텔



(사진85)바다위에서본 제주시

이 시기에 제주 관광개발의 상징적 건물이라고 할 수있는 대표적인 건물은 제주시의 KAL호텔(김희수,1974)이다. 이 건물은 건축형태가 비행관제탑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21층 높이로서 당시로서는 상당한 규모의 건물로 제주 미래의 발전상을 암시하는 건물이고 관광제주의 이미지전달 기능을 충실히 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는 고도제한에 묶인 건물과는 달리 제주시의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사진84)



(사진86) 제주도청

한편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시범관광도시로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격차해소 그리고 기존 시가지의 지가(地價)상승 억제, 주요 행정기관 등의 업무시설 유치에 의한 도시기능의 증진, 주택난 해결을 목적으로 1977년부터 연동지역의 2백만 평의 토지를 대상으로 신제주 구획정리 사업이 실시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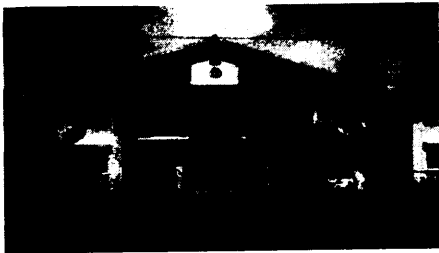
(사진87) 70년대 제주시

는 기본적으로 관광개발에 초점을 두었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균형적 배치 계

25)금성종합설계공사,화갑기념건축작품집·논문집「건축가金漢涉」,토탈디자인,1984년, p.64

26) 신행철외7인,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1984년, p87

획과 건축물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어, 현 도시계획상의 난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관청건물의 이전으로 제주도청사, 북제주군청사 등의 관청이 새로이
 건축되었으나, 내부·외부공간과 조형적 측면에서 제주의 향토성 있는 건축언어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사진86)(사진87)



(사진88) KAL 사원주택



(사진89) 제원 아파트

신

제주 지역의 개발붐에 따라 도시로 대량의 인구가 이동하기 시작하여 주택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도 최초의 아파트로서 제원아파
 트가 건설되었으며, 이후 KAL사원주택, 도남 공무원 연립주택 등의 현대식(사용
 재료나 공법에 있어서 전통건축과 다르다는 의미)중·고층 아파트가 등장하기 시
 작함으로서, 제주의 주거건축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사
 진88)(사진89)

농촌주거에 있어서도 1973년부터 농촌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목표로 시
 작된 새마을운동의 주택개량과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八字形의 건축형태와 사용재
 료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외국의 전원주거지 계획이론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제
 주 전통초가의 형태, 그리고 장소성이 짙은 마을의 공간 풍경이 사라지게 되고, 현
 대화된 주거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숙박시설의 급증과 이국적 주거문화의 도입으로 인한 도시경관의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道차원의 도시미관과 건축형태에 대한 심의지침이 나왔고,
 또한 市郡별로는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건축형태를 규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들 시책들은 어디까지나 관광객을 고려한 건축형태와 도시미관 심의였기 때문에
 단순한 건축형태만을 중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이라는 건축적
 본질에는 그 한계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²⁷⁾.

또한 이러한 미관심의 기준은 제주의 건축의 획일성을 가져오는 착오를 범했으
 며 타지역보다도 건축공사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를 끼쳤으며 결
 과적으로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고 본다.

60년대와 70년대의 관광지 개발붐은 제주지역의 낙후성 탈피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라는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하겠지만, 개발 그 자체가 도민 주체가 아니라 중앙
 정부와 타 지역 주민의 자본에 의하여 주도 된 것이었기 때문에 계층간의 괴리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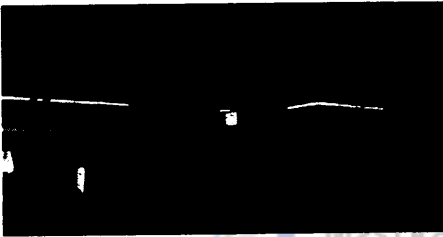
27)김석윤, 제주건축-지난 50년, 오는 50년,(제주도 통권100호),1998년, p.219

과 함께 건축의 지역성·향토성 상실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안고 있었다.

IV-2 1980년대 제주개발의 정책적 추진과 현대건축의 정착기

1980년대에는 비교적 대형건축물이 많이 건축되었고, 70년대의 무비판적 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제주건축의 지역성과 향토성에 대하여 서서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계기는 제주건축의 정체 속에서 김원의 「한국현대건축의 반성」이란 제목의 제주강연은 지역성에 대한 새로운 모색의 원동력이 되었고, 제주건축에 대한 자각을 가지게 되었다.²⁸⁾ 이를 계기로 1982년 2월에 정규대학 출신의 건축사들이 한국 건축사 협회 제주지회를 결성하여 지역 건축문화를 주도하는 건축집단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사진90) 제주 자연사박물관



(사진91) 기당 미술관

행정기관에 있어서도, 지역적 건축문화의 형성을 위한 일환으로 건축 미관심의를 실시하고, 지역 건축문화의 정착을 위해 우수미관 주택상(1981), 제주 특유주택 설계공모전(1982~84), 그리고 제주도 향토성 건축 보급방안연구(1987)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官民의 지역적 건축운동은 전통적인 제주의 건축재료인 현무암, 송이의 사용을 통한 지역성 표출을 위한 실험적 모색이 두드러진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건축물로서 제주 자연사박물관(김홍식,1983), 제주 국제공항청사(1984), 우당도서관(김원,1984), 기당미술관(김홍



(사진92) 문예회관

식,1984), 제주 문예회관(김홍식·김상식,1988) 등을 들 수 있다.

제주 자연사박물관과 기당미술관은 제주건축의 지역성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독특한 설계 접근방법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각 공간구성을 울(律)의 의미로서 해석하여 천(天)이 되는 태양(太陽)과 소양(小陽), 지(地)가 되는 태음(太陰)과

28)김석운, 제주건축-지난 50년, 오는 50년,(제주도 통권100호),1998년, p.220

소음(小陰)의 4분법적 공간구성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건축형태에 있어서는 제주 전통초가와 돌(곡식저장고)의 형태로 도입하여 지역성이 짙은 건축물로 평가되어 지고 있다.(사진90)(사진91)

제주문예회관(김홍식,김상식,1988)에 있어서도 안거리와 밖거리의 대립적 배치에 의한 명쾌한 공간구성과 완만한 지붕, 그리고 현무암에 의한 벽체 마감으로 향토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지만, 무대공간의 프로세니움을 가지는 극장의 특성 때문에 이들 공간에 대한 처리와



(사진93) 돌

건물의 비례감에 있어서 어색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진92)(사진93)

1980년대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건축물의 규모와 기능에 상관없이 제주건축에 대한 건축언어의 요소를 초가집의 모양이나 돌 등의 형태적 요소를 직설적으로 해석, 도입하고, 마감 재료에 있어서도 현무암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건축적 언어로 남게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점이다.

그러나,1980년대 말에 불어온 지가상승의 열풍과 주택수요의 급증현상은 오피스텔과 아파트건축의 붐으로 이어져, 고층화, 대형화되어, 모처럼 모색되어 왔던, 지역성 건축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상실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상업주의에 의한 저급한 건축형태의 보편화 현상 가운데에서도 몇몇 작가들의 작품에서 제주건축의 지역성과 향토성에 대한 모색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의 성향은 제주지역의 건축가에게도 자극되어 지역적 건축에 의한 논의와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할 만 하겠다.

IV-3 1990년대 제주 현대건축이 향토성, 지역성이 요구되는 모색기의 제주건축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에 관한 활발한 모임과 토론이 있었다. 이와 함께, 지역건축가의 활동도 두드러져 제주 건축작가 초대전이 개최 되었지만, 지역적 건축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라고 하기보다는 한라문화



(사진94) 파라다이스호텔



(사진95) 신라호텔

재의 연례행사에 머물러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리고 또한 80년대부터 이어진 호텔과 오피스텔, 그리고 주거건축의 건축물량의 과잉공급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몇 안되는 건축작품이 그나마 명백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사진96) 대한항공빌딩



(사진97) 교보생명빌딩

이 시기에 건설된 대형 건물로서는 서귀포시의 파라다이스호텔(김호,1990)과 신라호텔(박승,1991), 제주시의 대한항공 제주지점사옥(김성래,1990), 교보생명 제주사옥(시저펠리(Cesar Pelli),1991)등이 그것이다.(사진94)(사진95)(사진96)(사진97)



(사진98) 씨빌리지호텔

서귀포시의 파라다이스호텔(김호,1990)과 신라호텔(박승,1991)은 관광호텔로서 타지방과 구별되는 문화 즉 異國的 이미지로 해석되어지는 경향에 따라 건축된 호텔건축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신문사가 제정한 「도시환경문화상」에 이국적 정취가 가득한 서귀포 파라다이스호텔(1990), 신라호텔(1991)이 선정된 것은 도시적, 지역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인 씨빌리지는 제주의 전통 초가 형태를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감각의 호텔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대조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사진98) 이들 건물이 상업성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대한항공제주사옥과 교보생명제주사옥은 기업 이미지의 홍보성에 비중을 둔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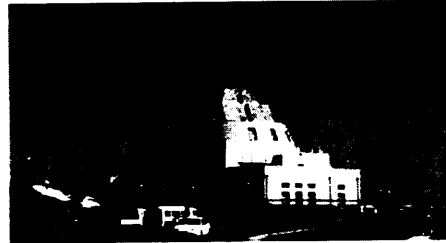
대한항공 제주지점사옥은 단순한 형태에 기능성이 강조되고 또한 全面을 유리로 장식하여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어서 제주건축의 본래 이미지인 온순하고 순박한 이미지와는 조금 대조적이다. 그리고 교보생명 제주사옥은 시저펠리가 설계한 駐日미국대사관의 형태를 그대로 옮겨와 서울, 부산, 그리고 제주 등지에 건축한 것으로 지역적정서와 환경을 고려하여야 하는 건축의 본질을 외면한 단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관광중심의 개발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상업적 투기성과 투자효과를 거두기 위한 상업적 흥행성과 저속한 장식성에 초점을 둔 것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왜곡된 제주의 이미지와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사진99) 국립미술 박물관



(사진100) 탐동해변공연장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현상설계 공모전을 통한 작품선정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각각 현상설계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은 국립 제주 박물관(김기웅,1992), 제주관광민속관(김희수,1993), 탐동해변공연장(김용철,1995), 남제주군청사(김성래,1997), 제주시민회관(김희수,1997), 제주의료원(삼우설계,1997), 제주컨벤션센터(日建設計,1997)이다.(사진99)(사진100)(사진101)(사진102)



(사진101) 제주관광민속관



(사진102) 제주컨벤션센터

현상설계 당선작품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의 작품이 제주 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부 작품에 있어서는 濟州의 역사와 文化, 그리고 제주건축의 해석과 설계상의 적용방법에 있어서 왜곡된 형태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는다.

국립 제주박물관은 제주 고유의 재료인 송이를 이용한 송이벽돌을 사용함으로써 차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중문 관광단지의 제주 관광센터와 마찬가지로 제주의 초가집을 模寫한 듯한 완만한 곡선과 구체의 조형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붕을 동판으로 처리함으로써 푸르게 조화되도록 계획되었으나, 오히려 주변환경과는 구분되는 이질적 요소로 작용되기 쉽게 느껴진다. 또한, 중정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배치형태도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다.



(사진103) 방사탑

탐동 해변공연장과 제주 관광민속관은 제주의 방사탑(防邪塔)²⁹⁾을 模寫한 듯한 건축언어의 형태로 나름대로의 지역정서를 표출하고자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언어의 묘사로 인하여 오히려 건축언어성의 저하 뿐만 아니라, 배치형태와 마감 재료 등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물이라 할 수 있겠다.(사진103)

지붕의 형태와 마감 재료에 있어서 제주건축의 언어성을 模寫한 리얼리즘적인 형태가 지배적인 가운데 씨빌리지(김인철,1991), 제주 영화박물관(김석철,1997)에서 볼 수 있듯이 반원 볼트형과 원통형의 지붕형태, 전통초가의 재료와 현대 건축재료의 조화, 송이벽돌과 현무암 등의 다양한 마감 재료 사용에 의해 지역성을 표출하려는 시험적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사진104) 영화 박물관

한 시험적 작품으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사진104)

이러한 지역주의 건축에 대한 관심과 몇몇 건축가들의 노력에 의하여 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중심이 되어 제민일보의 제주 건축문화대상(제민일보,1996)과 제주시의 건축문화상(1996~)을 실시하고, 또한 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거건축의 기준도면(1998년)을 선정하여 독특한 제주문화에 바탕을 둔 지역건축의 보급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는 제주도 건축사협회에서도 「제주도건축의 지역성 재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적 건축에 대한 토론과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 건축문화대상과 건축문화상, 주거건축 기준도면의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들의 성향을 보면, 제주의 지역적 전통요소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나름대로 건축언어성을 구사하고자 하는 흔적이 엿보이고 있으며, 건축평면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공간구성기법을 도입한 작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오는 전형적인 제주건축의 형태적 언어성 표현의 한계를 넘지 못함이 조금은 아쉬움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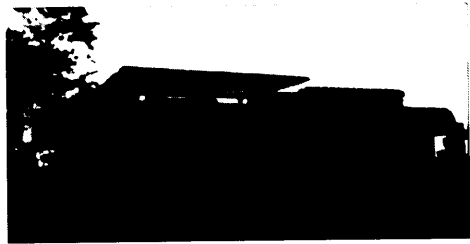
이와 함께, 제주건축의 보급을 위해 실시된 이들 공모전 작품의 선정기준은 ①도시경관으로서의 건축, ②미래지향적 건축, ③제주적 삶과 표현이 길든 건축에 두고

29)방사탑은 풍수 지리적으로 나쁜 귀신이 침입하기 쉬운 장소나 마을의 경계되는 곳에 원통형의 돌담을 쌓아 不淨과 惡運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답(탑)’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방사탑으로 부르고 있다.

있으나, 보다 명확한 원칙설정이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의 전반적인 작품의 성향을 보면, 지역적 전통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다양한 건축언어요소를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송이 벽돌 등 다양한 마감 재료에 있어서도 사용하기 시작하는 등, 제주건축의 새로운 모색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제주지역 건축계에 있어서 커다란 아픔이라면, 김중업선생의 구 제주대학 본관과 독립의료원의 본관인 전신 자혜의원의 철거를 들 수 있다. 김중업선생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구 제주대학 본관건물은 1993년5월에 보존방안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가졌지만, 결국은 1995년 3월에 철거되어 버려, 제주지역에서의 건축문화의 한계성을 실감하게 하였다. (사진105)



(사진105) 구제주대학본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V. 결론

V-1 연구의 결론

지난 시대를 해석하고 평가해내는 일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 우선은 지난 시대를 말해줄 수 있는 자료(史料) 자체가 지닌 한계성을 들 수 있으며 또 이들 자료를 해석하는 관점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뒤따르기는 하지만 지나간 시대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작업을 다른 말로 역사의식 또는 역사 편찬이라 할 수 있겠다.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많겠으나 무엇보다도 인간 삶의 궤적을 반추 해봄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해 나가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건축은 史家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史料이상의 의미를 지녀왔다.

건축은 곧 한시대의 産物로 그 시대를 살아온 인간 삶의 궤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 같은 건축의 속성에는 기능성, 장소성, 시대성이란 3가지 요소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시대 또는 사회의 거울로 치부될 수 있었다.

우리 근대건축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의 표정이라는 것도 이같은 건축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으며 근대건축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所以다 하겠다.

제주는 대체적으로 도시형 경관을 지니기보다는 전원적 색깔을 풍기는 도시였으나 개항이후 근대도시로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해방이후 미군정시대, 6.25전쟁, 그리고 5.16혁명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주는 다른 어느 지역 보다고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본다

개항이후 8.15해방까지의 근대건축은 선진열강들이 서구의 근대화의 개념이 아닌 식민지적 목적을 갖는 수단으로서의 건축일 뿐이며 권위주의적이며 봉건적인 건축으로 볼 수밖에 없다. 8.15해방은 이 당시 건축인 들로 하여금 기술인력과 재료의 부족 자본력의 부족 등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새로운 사회건설의 주역으로서 사명감을 갖게 하였으며 건축의 사회화 일제식민잔재의 청산이라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60년대 이후의 근대화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였지만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근대기에서의 근대의 의미가 과연 발전이란 의미로 그 당시에 해석되어졌는지는 생각 해볼만한 여지가 있는 것은 전통과 극심한 갈등에서가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건축의 사회성을 주목할 때 이 시기의 한국건축은 사회 현실에 대응해서 수동적 입장에 머물렀음은 지적할 수 있다.

사회 구조에 나타나는 종속적 성격을 건축 역시 여과 없이 반영하여 우리의 건

축의 상당수가 서구건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無國籍한 건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시기 제주건축이 근대건축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지적할 문제는 상실되어버린 우리의 과거와 건축가들의 무 이념 인식부족에 따르는 서구 근대건축의 맹목적 복제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의해 우리의 근대건축 대다수는 구조적 기술적 완결성이나 내부 空間論, 기계미학과 같은 建築적 상위 개념은 도외시 된 채 일시적 실용성이 강조된 맹신적 근대화와 경제원리에 이끌려 왔다고 할 수 있다.

개항이후 근대건축물들은 대부분 당시의 모습에서 오늘날 경제적 성장에 따른 지역의 변화 가운데서 시대적, 경제적 논리에 따라 그 원형을 잃고 있으며 하나, 둘씩 철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근대 건축물들이 몇 년 안에 없어 지게될 형편에 놓여있음은 어쩔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남아있는 당시의 근대건축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인식을 갖고 과거와 미래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왔다고 하겠다.

한민족이 자기나라 과거의 건축유산을 보존하려는 의식은 곧 그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한다. 역사가 있는 건축물을 보존하는데 제도적, 정책적 배려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건축물 보존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우리사회는 아직 근대건축물들을 우리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근대건축물들의 보존문제는 상당한 위험수위까지 왔다고 보아진다. 이런 시점에서 학계와 건축관련 단체는 지금까지 방치하듯이 해온것에 대한 보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관계 행정당국과 문화재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함께하여 근대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보존에 대한 노력을하여야 소중한 건축문화 지키기가 보다 앞당겨 지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근대건축이 우리의 전통건축의 불연속은 결과적으로는 근대건축이 발전되지 못하고 고사의 위기를 맞고 있는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현대건축 역시도 근대건축과의 단절로 인해 이후 우리후배들에게 지난 시대의 건축을 시대적 산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고사될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이 지역의 건축이 단절 없는 연속성을 갖고 지역적 정서와 토착성 및 향토성을 잘 보존하면서 단절 없는 建築史를 이어나가야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몇몇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 한 것이며 기성세대만이 해결할 수있는 과제도 아니다. 즉 건축관련단체, 학계, 유관문화단체와 협심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각 교육기관에서도 자라나는 건축도들 에게 교육이 되어져 이 지역의 건축사가 중단 없이 큰 줄기를 이루어 도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급선무이다.

V-2 전망과 과제

이제 제주의 건축문화는 크게 변하려 하고 있고, 변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21세기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독창성과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가장 지방적인 건축이야말로 가장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문화이고 세계적인 문화인 것이다.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시대적 요구에 기인하는 제주지역의 고유문화 형성에 시각을 맞춘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 형태적 모색에서 기능적 모색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자연의 생명과 조형 가운데서 그의 철학을 발견하고, 그의 건축이념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유기적 건축(Organic Architecture)이라 부르고, 생명력이 있는 다수의 건축작품을 남겼다. 그리고, 공간의 전통성에 많은 관심을 가진 건축가 안도타다오는 노출콘크리트와 유리로 마감된 「住吉長家屋」 작품을 통하여 현대건축의 내부공간에 일본의 전통공간을 적절히 구성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이와 같은 작가다운 건축이나 향토적성격이 짙은 건축의 시도가, 몇몇 지역건축가들에 의하여 제주다운 건축적 언어로 모색되어지고 있고, 이들 작품은 형태뿐만 아니라 제주다운 공간의 기능적 표현에 있어서 제주건축의 언어적 표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제주건축에서 모색되고 시도되어 온 것은 형태적 언어였다. 제주의 전통주거를 유추한 볼트형의 지붕이나 모입지붕에 한정되어 형태적 건축언어의 모색이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듯하다.

건축은 3차원적 구성, 즉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공간적 기능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제주건축이 문화로서 계승 발전되기 위해서 한라산의 영봉(靈峰)이 보이고 바다의 수평선이 펼쳐지는 원풍경(遠風景), 집을 중심으로 한 울안의 내부공간구성으로서 안 거리와 밖 거리의 별동 배치, 「올래(유도공간)」, 「올래목(전이공간)」, 「안마당(주공간)」이라는 삼분공간구성 등과 같은 독특한 공간적 구성에 대한 관심과 현대적 건축형태로의 표출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자연경관과 조화된 자연 친화적인 건축의 추진이다.

향토건축의 큰 특징중의 하나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와 그 지역의 기후를 배려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三多島(돌, 바람, 여자)라 불리는 제주는 지질학적 특성상 현무암이 많다. 현무암은 거의 모든 건축과 담, 심지어는 무덤에까지 사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주건축 재료이지만, 현대건축의

의장재료로서 사용상에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제주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개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뛰어난 자연경관과 잘 조화될 수 있는 건축, 즉 자연 친화적인 건축으로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는 三多島인 제주가 가지는 독특한 해양성 기후조건을 고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존 유지하는 건축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에게 삶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되는 도시·건축계획의 추진이다.

관광지로서 개발 성장된 제주지역은 개발에 의한 외적 성장에 비하여 삶의 질적 향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즉, 濟州道民 주체가 아닌 타지역의 자본에 바탕을 둔 타의적 개발로 인하여 지역사회에는 실질적인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는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상업주의적 지역개발은 자연 및 도시경관의 훼손으로 이어졌고 개발에 대한 상대적 거부감과 반발이 內在되게 하였다. 따라서, 경제에 바탕을 둔 개발에서 삶의 질적 향상에 바탕을 둔 개발과 자연경관을 적절히 보존하는 도시·건축계획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1890년대 이후 우리 나라의 근대사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주건축에 나타난 근대적, 현대적 성격을 시대별로 고찰한 것으로서 제주의 근대·현대 건축사라는 가치개념을 통해 제주의 전통건축과 근대·현대 건축과의 단절된 역사의 흐름을 놓고 전통건축의 현대 우리건축으로의 승화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적 자료정리에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근대화의 정의에 대한 고찰과 우리 나라의 근대화, 현대화 과정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함으로서 1876년 이후의 근대건축과 현대건축의 전개과정 및 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 3부분으로 구분되었다.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제2장은 본 연구의 틀을 정립하는 단계로서 서구의 근대화 및 서구 근대건축이 우리 나라에서의 근대화 및 근대건축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한국 근대건축사의 시대별 구분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서 제주에서의 시대별 상황과 근대기에서 현대기로 전이되는 시기별 구분과 그 시대의 상황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시대별 제주 근대건축에 관해 구체적으로 개화기의 제주사회와 제주의 태동기적 근대건축에 대해 일부는 현재 남아있는 부분으로 정리하였고 일부 소실된 건축물은 사진과 문헌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제주 근대건축의 초기 성격과 이입시기 및 경로를 파악 정리하여 서구 근대건축의 이입으로 말미암아 서양건축을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조선과 제주의 전통건축이 근대건축과 단절되어 가는 원인을 부각시키면서 시대별로 정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해방이후 제주의 근대건축에서 현대건축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현대건축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줄 동기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난 시점에서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해내고 표출해 나가야 될 시점에서 70년대의 제주 현대건축을 전개기로 정의하였으며 80년대를 제주건축의 정책적 추진과 제주 현대건축의 정착기로 정의하였다. 90년대를 제주 현대건축의 향토성, 지역성에 뿌리를 두고, 제주다운 건축적 언어성이 모색되는 모색기로 정의하여 지역적 소재와 현대건축이 서로 상호 보완하여 우리의 것 즉 우리의 건축을 찾아 나섬으로서 건축이 지역사회와 교감이 되는 진정한 건축의 목적을 찾는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개항 이후 당시의 건축물들이 오늘날 경제적 성장에 따른 지역의 변화 가운데서 그 원형을 잃고 있으며 하나 둘 철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근대 건축물들이 몇년안에 없어지게 될 형편에 놓여 있음은 어쩔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남아있는 당시의 근대건축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인식을 갖고 과거와 미래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왔다고 하겠다.

한 국가가 과거의 건축 유산을 보존하려는 태도는 곧 그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는데 제도적, 정책적 배려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건축물 보존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 근대건축물을 우리의 문화 유산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근대건축물들의 보존문제는 상당한 위험수위까지 왔다고 보여지고, 학계와 건축관련 3개 단체(대한 건축 학회, 건축가 협회, 대한 건축사 협회)집단은 지금까지 소홀히 해 온 근대건축의 보존 기록 사업을 역사적인 소명 하에 하루속히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문화재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함께 할 때 근대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보다 앞당겨 질 것이며 우리 제주의 건축역사의 맥이 끊기지 않고 영원히 흘러갈 것이다.

결국 우리의 근대건축은 기존의 전통건축과 단절을 가져와 결과적으로는 고사의 위기를 맞고 있고, 또한 현대건축이 근대건축과의 단절은 이후 우리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들의 시대의 건축을 시대적 산물로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존하여 이 지역의 건축이 단절 없는 연속성을 갖고 지역성과 향토성을 잘 보존하면서 제주의 建築史를 이어나가야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범도민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며 건축인 만이 해결해야될 과제도 아니며 건축 관계 단체, 학계, 유관 문화단체 및 범도민적 공감대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에 있어서도 역사 의식을 갖고 후배들에게도 인식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지역의 건축 역사가 중단 없이 큰 즐거움을 이루어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급선무이다. 결국 우리 제주의 근대 및 현대 건축사는 전통건축과의 단절된 모습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제주의 단절된 건축사를 이어나가는데 시대적 역할을 하여야 될 것이며 미래건축으로 제주건축이 도약하는 즉 한 세기를 마감하고 다음 세기를 준비하는 세기말적 역할을 담당하여 근대 및 현대건축이 역사적 사실로서 기록되고 제주 문화의 한편의 위치를 차지할 때 제주의 건축은 역사에 중단 없이 길이 이어질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朴用厚, 濟州島志, 백영사, 1976
- 변승규, 濟州島略史,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2
-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교육연혁사1, 1987
-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교육연혁사2, 1987
- 제주상공회의소, 사진으로본 제주상의 60년사, 1995
- 제주도교육연구원, 향토사교육자료, 1996
- 김홍식, 민족건축론, 한길사, 1987
- 안창모, 일그러진 한국 현대 건축의 단편들, 도서출판 재원, 1996
- 신행철외, 제주사회론2, 한올아카데미, 1998
- 국사학과연구실, 韓國史概說,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 전석담, 최운구의, 조선근대사회 경제사, 이성과 현실, 1989
- 서상우, 세계의 박물관·미술관, 기문당, 1996
- 김석윤, 제주건축-지난50년오는50년, 제주도공보관실편 「제주도」 통권100호, 1998
- 제주도, 제주다운건축경관 조성방안, 1996
- 제주도건축사회, 97제주건축세미나 「제주도건축의 지역성 재론」, 1997
- 대한건축가협회, 구제주대학 본관의 보존에 대하여, 「건축가」 통권127호, 1993.2
- 대한건축사협회지제도지부, 제주건축 제1집 (대한건축사협회제도지부 20년사), 1986
- 대한건축사협회제주도지부, 제주건축 제2집(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1992
- 대한건축사협회제주도지부, 제주건축3집(대한건축사협회제도지부 30년사), 1995
- 대한건축가협회, 구제주대학 본관 보존을 위한 세미나, 「건축가」 통권128호, 1993.3

■ 학위논문

- 김승남, 1980년대 후반이후 한국에서 나타난 건축물 형태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논, 1993
- 김용균, 현대건축사조별로 본 한국현대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 수원대석논, 1993
- 정태용, 한국건축에 나타난 근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논, 1994

- 김정임, 일제시기 한국근대건축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석논, 1994
- 정형봉, 1960-70년대의 한국현대건축의 사회학적 해석에 관한 연구, 경북대석논, 1993
- 김일현, 1960년대 한국건축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논, 1994
- 음민정, 사회학적 해석을 통한 1945-1961년 한국건축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논, 1994

■ 학회논문

- 대한건축학회편, 건축, 제41권 제8호 통권219호, 1997

■ 정기간행물

- 월간플러스, 윤인식, 동아시아에서의 근대와 건축문화, 1991.11
- 월간플러스, 김원모, 한국의 근대화운동과 서양문화 수용, 1991.10
- 월간플러스, 김정동, 한국건축이 서구사회에서 정의되는 근대화 및 현대화의 의미, 1991.10
- 월간건축문화, 방철인, 80년대의 한국현대건축, 1991.01

